

녹두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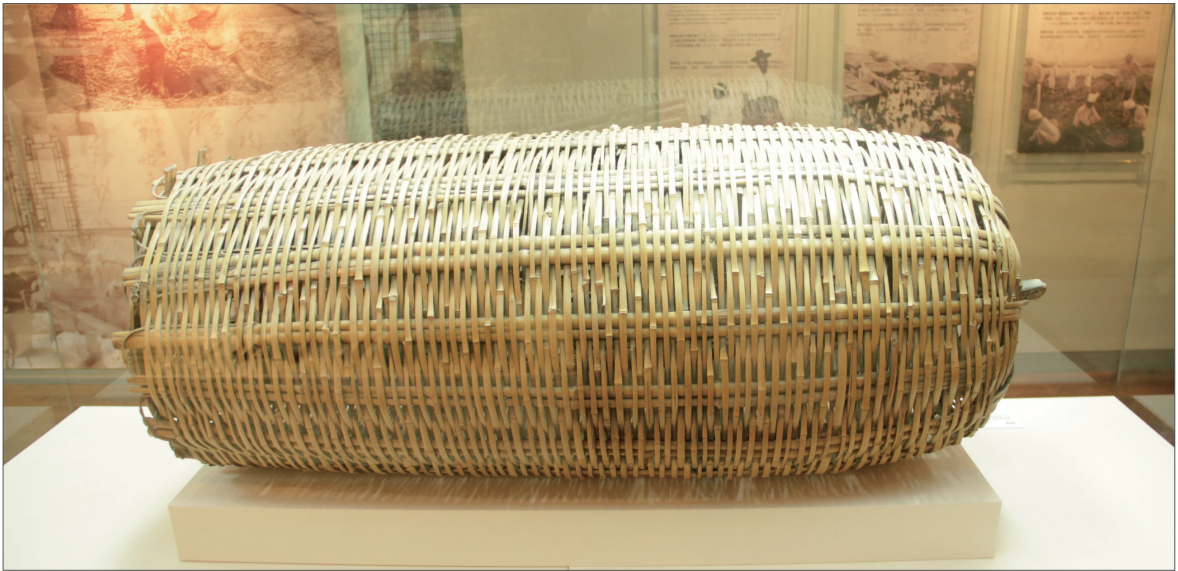
2013 여름호

2014년은 동학농민혁명기념 1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새야 파랗새야
녹두밭에 앉지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간다



장 태



닭을 넣어 기르는 용도로 만들어진 장태는
황룡전투에서 무기로 활용되었다. 농민군은
장태의 내부에 벼짚을 가득 넣고 뒤에 숨어
날아오는 총알을 피하거나, 불을 붙여 굴리며
경군을 막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Contents 2013 여름 12호



02	기념관 화보	
04	기획특집	우리나라 최초의 농민자치기구 '집강소를 찾아서' - 기념관운영부 학예사 박아영
08	녹두칼립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원도연
10	인터뷰 ① 동행공감	석대들의 정신을 후대까지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사)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이종찬
14	동학농민혁명 역사 바로알기	사발통문 봉기계획 - 연구조사부장 이병규
16	인터뷰 ② 발굴! 참여자유족	짧게 살아도 가치있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 손화중 장군의 손자 손홍렬
20	동학농민혁명 인물열전	충북 북부지역의 최고 동학농민군 지도자 성두한 - 충북발전연구원 충북학연구소장 김양식
22	만화로 보는 동학농민혁명	농민군의 동향과 일본의 대응
24	동학농민혁명 스토리텔링 대상	오동단, 동학농민혁명의 혼을 찾아서



28	함께하는 기념관 ①	1894년! 그날을 되새기며 민주주의를 생각하다. - 마산무학여자중학교 교사 강정석
30	함께하는 기념관 ②	동학농민들의 흔적이 담긴 정읍을 다녀와서 - 마산무학여자중학교 3학년 1반 이호정
32	동학농민혁명 도서관	겨울잠, 봄꿈
34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	부안, 김제의 동학농민혁명유적지
38	기념재단 사발통문	재단소식 / 주요사업안내 / 행사 알림
42	네트워크 소식	정읍동학역사문화연구소 120주년 기념사업 청사진 제시 외
48	녹두꽃 날말퍼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소식지 <녹두꽃> 2013년 여름호(12호) 발행 2013년 6월 28일
 발행처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발행인 김대곤 주소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전화 063.538.2896
 팩스 063.538.2893 e-mail 1894@1894.or.kr homepage. www.1894.or.kr 제작 한솔디자인
 본문에 실린 외부 집필자의 글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간지 "녹두꽃"은 창간호(2010년 가을호)부터 이번호 까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술과 해설로 배우는 역사

글로 배우는 역사.

머리 아프고 딱딱하지요?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는

기록화와 부조, 영상으로

그리고 입담 좋은 해설가를 통해

동학농민혁명 당시의 모습을

생생하게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글이 아닌

예술과 해설로 배우는 역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집강소는 동학농민혁명사에 있어 여러 측면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에 틀림없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 이를 소개하기 위한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다. 집강소의 전반적인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동학농민군의 집강소가 생겨나게 된 배경과 집강소를 이루는 구성원들의 활동상과 각자의 역할, 그리고 이들이 집강소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었는지 등으로 크게 구분하였고, 그에 따른 전시물을 준비하였다.





전라감영 선화당

우리나라 최초의 농민자치기구 집강소를 찾아서

전시를 기획하며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 기획한 2013년도 상반기 전시의 주제는 ‘우리나라 최초의 농민자치기구, 집강소執綱所를 가다’이다. 집강소는 동학농민군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였던 자치기구로 시기적으로는 반봉건을 외치며 일어난 1차 동학농민혁명과 조선을 침입한 외세에 대항하고자 일어난 2차 동학농민혁명 사이에 존재했다.

이러한 집강소는 동학농민혁명사에 있어 여러 측면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에 틀림없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 이를 소개하기 위한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다. 따라서 집강소의 전반적인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동학농민군의 집강소가 생겨나게 된 배경과 집강소를 이루는 구성원들의 활동상과 각자의 역할, 그리고 이들이 집강소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었는지 등으로 크게 구분하였고, 그에 따른 전시물을 준비하였다.



전시 소개

이번전시는 총 다섯 개의 소주제로 나누어 구성되었다.

Part. I 먼저 첫 번째 파트는 '1894년 7월 6일, 2차 전주화약으로 관공과 민민이 화합을 약속하다'로, 이 부분에서는 조선 역사상 최초로 관과 민이 화약을 이루고, 그에 대한 결과물로서 집강소 설치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조명하였다.

1894년 7월 6일, 조선정부를 대표한 전라감사 김학진과 동학농민군을 대표한 전봉준은 전라감영에 함께 자리하였다. 두 사람은 당시 매우 혼란스러웠던 조선의 정세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눈 끝에 동학농민군의 집강소 설치 허가를 골자로 한 전주화약을 이끌어 내었다고 한다. 원래 집강소는 조선 향촌사회의 안정을 위해 지역 양반층을 중심으로 운영하던 기구였으나, 이 시기에는 본래의 기능과 운영주체가 동학농민군에게 옮겨가게 된 것인데, 반상班常이 엄격하던 당시를 떠올리면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대단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Part. II 한편 전라도 53개 군현을 중심으로 집강소를 설치한 동학농민군은 각자의 역할을 분배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해 나간다. 두 번째 파트인 '조선 역사상 최초, 민민이 주체가 된 집강소가 그 체계를 갖추다'에서 이러한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전시 유물 가운데 유생 정석모가 기록한 '갑오약력甲午略歷'에는 "김학진과 전봉준의 전주화약 이후 집강소 설치 허가에 따라 각 읍의 공청에 집강소를 설치하고 서기書記, 성찰省察, 집사執事, 동몽童蒙과 같은 임원을 두어 완전히 하나의 관청을 이루었다."는 기록이 나타나 각자의

“

조선 역사상 최초로
관과 민이 화약을 이루고,
그에 대한 결과물로서
집강소 설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조명하였다.

”



기획전시실 전경

직임職任에 따른 역할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Part.Ⅲ 세 번째 파트는 '집강소의 활동상을 들여다 보다'라는 주제로 구성되었다. 전북 무주의 '적성지속지'에는 농민군 지도자 이형택이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계급을 타파하며 올바르게 도리를 따르는 자는 보호하고 도리를 어기는 자는 벌에 처한다."라는 연설을 했다는 기록이 있고, 황현의 '오하기문梧下記聞'에는 "(전)봉준은 각 읍의 포에게 명령하여 읍마다 도소(집강소)를 설치하고 자기들 사람으로 집강을 세워 수령의 일을 수행하게 하였다."는 내용이 있어 그들의 집강소 활동을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동학농민군의 활동은 여러 사료를 통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것은 원래 집강소의 역할이었던 향촌사회 안정을 도모하는 일과 더불어 동학농민군을 사칭한 부랑배의 단속과 폐정개혁안을 단행하는 일이었다.

Part.Ⅳ 네 번째 파트의 주제는 '집강소 시기, 전라도의 지역의 동학농민군을 만나다'로, 전라도의 53개 군현을 중심으로 집강소가 설치됨에 따라 농민군의 활동상이 두드러지는 시기에 전라도 외 지역의 동학농민군은 어떠한 활동을 주로 하였는가에 대한 내용이다. 전주화약 당시 전라감사 김학전은 집강소 설치를 허가하고 그들의 활동을 인정하되, 당분간 외세의 침략 등으로 매우 혼란한 조선의 정세를 살펴 큰 움직임은 자제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라도 지역의 동학농민군은 집강소의 주된 활동이었던 부랑배 단속과 폐정개혁안의 단행에 힘을 기울였던 반면 청일전쟁의 전장이 되어버린 충청지역을 비롯한 '경상지역의 동학농민군은 밀어닥치는 일본군을 막기 위해 마을에 보루를 쌓는 등의 반외세를 위한 움직임이 컸다고 한다. 전시된 유물 가운데 충청도 남양의 홍건洪健이 작성한 '홍양기사洪陽紀事'와 경상도 금산의 농민군 활동상이 기록되어 있는 '세장연록歲藏年錄' 등의 전시물에서 그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Part.V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파트는 동학농민군이 집강소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는데 그에 대해 '폐정이 바로 잡힌 새로운 세상을 꿈꾸다'라는 주제로 구성되었다. 주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동학농민군은 자신들을 옥죄는 폐정이 바로잡힌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바라며 폐정개혁안을 내세운 바 있다.

동학농민군의 요구사항을 담은 폐정개혁안은 당시 그들이 처한 상황이나 내려오는 문서의 종류 등에 따라 12개 조목부터 24개 조목까지 각기 나타나고 있으나, 그 안에 담긴 내용은 무명잡세의 폐지, 변질기관의 혁파, 외국상인의 불법 상행위 금지 등으로 일관되어 있음을 전시된 여러 유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집강소의 현대적 의미

1894년 조선의 백성이 반봉건·반외세를 기치로 내세우며,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가족과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은 용기는 익히 알려진 바 있으며, 이번 전시에서는 집강소의 설치 배경과 조직은 물론 집강소를 스스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소개하여 그들의 탁월한 주체성과 체계성을 조명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동학농민군의 집강소는 오늘날 민주정치의 효시, 지방자치의 원형 등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 같은 평가는 향후 동학농민혁명의 현대화, 세계화에 단초를 제공할 것이다. 끝으로 오는 9월 28일까지 진행되는 '우리나라 최초의 농민자치기구, 집강소執綱소를 가다'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

기억과 복원'의 역사적 과제와 기념사업

2014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목표와 방향



원도연(원광대 한국문화학과
문화콘텐츠 전공)

필자약력

전북대 사회학과 졸 | 고려대
대학원에서 문화사회학 박사 |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간사
| 문화저널 편집장 | 전주시정
발전연구소 연구원 | 전북발전
연구원 지역발전정책연구소장
| 전북발전연구원장을 지냈다.

1992년 동학농민혁명 1백주년을 2년 앞두고 처음 기념사업이 시작되었을 때, 우리의 기본 목표는 '기억과 복원'이었다. 잊혀지고, 왜곡된 기억을 바로 세우고, 무너지고 부서진 흔적들을 복원하는 일이 기념사업의 첫 번째 목표였다. 교과서를 바로잡고 여전히 동학란으로 남겨져 있는 국가기록을 바로 잡는 것, 많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잊혀졌거나 역사책의 한 페이지로 대충 기억되어 있는 그 사건의 진실과 역사적 맥락을 밝히는 것, 혁명의 시대에 젊음과 인생과 목숨을 바친 한 많은 넋들에게 나라와 민족의 이름으로 제사상 한번 제대로 바쳐 올리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표였다.

동학농민혁명 1백주년을 기념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것은 유적지 답사였다. 곳곳의 역사 현장을 다니고, 기억을 더듬어 사람과 기록을 찾아내고 그곳에 의미 있는 표식을 남겨 다시 잊혀지지 않게 하자는 뜻이었다. 그리고 이른바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동학농민혁명은 명예를 되찾았고 복권되었으며, 국가가 기념해야 하는 국가적 사업이 되었다.

20년을 지나 당시 버려지고 무너졌던 유적과 전적지들은 정부와 각 시군의 노력으로 기념비와 공원이 만들어졌다. 기념사업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치러졌느냐의 문제를 떠나, 동학농민혁명이 지역사회의 빛나는 역사로 자리 잡은 것은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학농민혁명이 내년 120주년 두 갑자를 맞이하면서 끝끝내 마음에 흔쾌하지 않은 것이 두 가지 있다.

첫 번째는 원평의 구미란 전적지다. 원평은 이미 지역사 뿐만 아니라 민족운동사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진 지역이다. 훌륭한 독립운동가를 배출했고, 3.1 독립운동에서도 큰 흔적을 남긴 자랑스러운 곳이다. 바로 그곳 원평 구미란 동산에는 지금도 수십인지 수백인지 모를 동학농민혁명의 마지막 전사들이 1894년 겨울의 그 모습 그대로 잠들어있다.

동학농민혁명에서 원평은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동학농민혁명의 전후로 원평은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모습을 드러낸다. 1893년 금구취회는 농민혁명의 예고편이었다. 충청지역에 자리를 잡은 동학교단이 놀라고 당황할 정도의 혁명적 열기에 휩싸였던 곳이고, 황토재에서 전라감영군을 격파한 뒤 영광까지 남하했다가 순식간에 전주성으로 올라오면서

임금이 보낸 특사를 처형하고 혁명군 스스로 퇴로를 끊었던 곳이기도 하다. 전봉준 장군의 실질적인 기반이 되었던 곳이고, 이곳 용계리에 터를 잡고 있던 김덕명 장군은 본인의 헌신은 물론이거니와 전봉준 장군의 절대적인 후견인이었다.

이곳 원평의 구미란에서 동학농민군은 최후의 전투를 치렀다. 우금치에서 조일 연합군에게 밀려나 기약 없이 남하하던 전봉준 장군 등이 최후의 전력을 모아 항전을 했으나 하루 만에 공식기록으로 37명의 전사기록을 남기고 전투는 끝났다. 당연히 여기서 핏발 선 눈을 부릅뜨고 죽어간 농민군이 아 뿐일까. 나는 그들의 억울한 죽음 앞에 지금 동학농민혁명을 기억하고 기념하겠다는 우리들 모두 당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구미란에서 일본군의 총과 칼에 목숨을 잃어가는 그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웠다는 뿌듯함도 없이 반란군이 되어, 자신의 죽음으로 혁명이 성공하고 후세가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도 없이 그 추운 겨울 눈 덮힌 산에서 쓸쓸히 죽어간 그들의 삶과 죽음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 그곳 구미란은 1994년 백주년 때도, 2013년 두 감자를 눈앞에 둔 지금도 그대로 버려진 땅이다. 유골도 수습되지 않았고 성의 없는 돌비석 하나도 세워지지 않았으며 간혹 답사객 들의 쓸쓸한 발길만 지나가는 곳이다.

또 하나는 북해도 대학에서 90년 만에 고국으로 봉환된 진도 출신 농민군 지도자 유골이다. 북해도 대학에서 유골이 발견되고 그 유골이 한국으로 봉환되던 그날의 감동을 나는 잊을 수 없다. 그런데 봉환된 지 17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유골은 안장되지 못 한채 자리를 못 잡고 있다. 북해도 대학 창고에 있을 때나 박물관 수장고에 있는 지금이나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가.

구미란과 북해도에서 봉환해온 농민군 지도자의 유골을 그대로 둔 채 동학농민혁명 두 감자를 말하는 것은 참으로 염치없는 일이다.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는 일은 절대로 이벤트가 될 수 없다. 우리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이벤트로서가 아니라 역사로 만나야 하고, 역사는 그 시대의 소명에 헌신했던 사람들에게 대한 '기억'에서 출발해야 한다. 1992년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자고 처음 모였을 때의 목표였던 '기억과 복원'은 유감스럽게도 지금도 그대로 목표로 남아있다.

동학농민혁명 두 감자의 기념사업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각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발전한 기념사업간의 연대와 협력의 틀을 만드는 것이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좋으나, 기념사업의 주체는 지역운동가들이다. 동학농민혁명은 전국적으로 일어났고 철저하게 지역의 분노와 힘이 분출한 사건이었다. 이 점은 동학농민혁명이 한국 민중운동사에 남긴 분명한 메시지가자 특징이다.

또 동학농민혁명의 시대적 의미를 짚어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중국과 인도, 베트남 등 한국과 유사한 조건에 놓여 있던 많은 나라들이 근대기에 거쳐야 했던 농민혁명을 체계사적 의미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사업은 매우 중요하다. 동학농민혁명은 서구중심의 근대혁명이 아닌 농민혁명으로 부터 출발한 아시아적 모델의 특성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서구적 가치와 아시아의 대립과 갈등의 양상을 보다 치밀하게 탐구하고 분석하는 것은 동학농민혁명을 새로운 의미에서 바라보는 일이 될 것이다. 동학농민혁명 두 감자는 더 큰 이벤트가 아니라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질적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
원평 구미란 동산에는 지금도 수십인지
수백인지 모를 동학농민혁명의 마지막
전사들이 1894년 겨울의 그 모습 그대로
잠들어있다.
”

석대들의 정신을 후대까지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사)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이종찬**

우금치에서 통한의 패배 이후, 주력농민군은 논산 황화대, 금구 원평, 정읍 태안으로 계속하여 물려갔고 거듭되는 패배로 결국 해산되고 말았다. 그러나 티끌 같은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도 장흥의 농민군들은 석대들에서 천루를 준비하였고 이것이 동학농민혁명 최후의 전투가 되었다. 장태장군, 남도장군, 관산대장군이라 불린 이방언 장군이 농민군을 이끌었던 장흥의 석대들은 현재 성역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6월에는 기념관이 완공될 예정이다. 이처럼 활발히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있는 장흥에서 장흥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이종찬 이사장님과 여러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들이 꿈꾸던 평등한 세상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항전했던 그들의 정신을 되짚어 보았다.



(사)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Q.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어떻게 설립되었습니까?

A. 장흥지역은 동학농민혁명 최후의 격전인 석대들 전투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를 기리기 위해 1992년에 장흥동학혁명기념탑이 건립되었고, 그와 동시에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기념탑 건립 후 12년 동안 준공식을 가지지 못했는데, 농민군에 희생당한 관군을 모신 영회당 측에서 반발하였기 때문입니다. 12년이 지난 2004년에야 준공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Q. 이번에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사단법인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습니까?

A. 장흥의 석대들 전적지가 늦게나마 공원화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우리 기념사업회도 사단법인으로 발족해야겠다는 의견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사단법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금이 필요하였고, 이를 충당하기 위하여 모금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발기원들이 서로 뜻을 모았고 유족회와 일반인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모금에 참여해주신 78분께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Q. 사단법인으로 승인되시면서 남다른 각오가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기념공원이 내년 6월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에 맞춰 장흥에서 끝까지 항쟁했던 동학농민군을 잊지 않고, 그 정신을 후대까지 선양하고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추모공간을 올바른 역사의 배움터로 활성화시킴은 물론, 우리가 추모하는 넋들이 해원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 할 것입니다

Q.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는 현재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십니까?

A. 금년에는 재단에서 정신선양사업 보조금을 지원해 주어 ‘장흥동학농민혁명과 지도자들’이라는 책자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이야기 장흥동학농민혁명사’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각 1천부씩 2천부를 발행하여 각 학급 학교와 교사 분들, 그리고 군민여러 분들과 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야기 장흥동학농민혁명사’가 발행되면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관계자들을 각 학급별 특별강사로 파견하여 책자를 바탕으로 직접 학생들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제작해둔 장흥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영상자료 등 교육용 자료를 다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여 유익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교사 분들도 동학농민혁명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아 충분한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Q. 장흥에서는 동학농민혁명당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A. 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며칠은 걸릴 거라 생각합니다. 장흥은 장태장군, 남도장군, 관산대장군으로 불린 이방언 장군과 접주들이 중심이 되어 백산봉기, 장성황룡전투에 참여하셨고, 특히 장성황룡전투에서 장태를 개발하여 농민군이 대승할 수 있었던 기틀을 마련했으며 이어서 전주성에 입성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2차 봉기 때는 주력농민군의 해산 이후에도 관군과 일본군을 맞아 석대들에서 최후의 격전을 벌인 곳으로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은 의지의 고장입니다.



Q. 장흥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소개해주세요.

A. 현재 기념공원이 조성중인 석대들 전적지를 첫 번째로 꼽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를 내려다보고 있는 장흥동학혁명기념탑이 있으며, 현재 공설운동장이 들어선 곳은 예전에는 무명동학농민군들의 묘가 있던 곳으로, 현재는 모두 이장되어 있습니다. 또 교도소 부근에 벽사역이 있는데, 이 벽사역은 이용태 장흥부사를 안핵사로 고부에 파견했던 곳입니다. 이용태가 농민군들을 탄압하여 1차 봉기의 원인이 되었으니 어찌 보면 장흥이 1차 봉기의 원인이 된 것이라 할 수도 있겠지요.(웃음)

Q. 이사장님과 동학농민혁명은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A. 장흥을 이끄셨던 이방언 장군이 제 증조부 되십니다. 그분의 후손으로서 60년대부터 동학농민혁명에 관심을 가지고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찾아다녔고, 지금은 작고하신 최현식 선생님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유족 분들도 많이 찾아뵈었는데 유족이면서도 뭔가 불이익이 있을까봐 부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특별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사라져 다행입니다.

Q. 석대를 전적지 성역화와 더불어 기념관 건립이 진행 중입니다. 이곳은 어떤 형태가 될 것이며 무슨 자료가 전시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A. 자세한 전시물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한 가지 꼭 전시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집을 수리 하던 도중 발견한 화승총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주역사박물관장을 지내셨던 역사학자 故오윤 선생이 그걸 보시고는 장흥에 기념관이 설립되기 전 까지 전주박물관에 전시하겠다고 차용증을 쓰고 대 여해가셨습니다. 이제 기념관이 세워지면 이를 다시 찾아와 전시하고 싶습니다. 기념관의 형태는 현재는 사라진 작은 석대를 복원하는 차원에서 외장을 흙으로 쌓고 관람객이 올라갈 수 있는 전망대 형태가 될 예정입니다. 그 내부가 기념관이 되는 것이지요. 읍 내에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많은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Q. 기념재단에 바라는 것이 있으십니까?

A. 제가 꼭 한 가지 바라는 것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에 관한 것입니다. 내년이면 동학농민혁명 120 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기념일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올해 안으로 기념일이 제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단과 기념사업회의 상호협조가 지금보다 더 원활히 이루어져 상생의 관계를 이루었으면 합니다. 모두가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서로의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다면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미래는 더욱 밝아 질 것입니다.



장흥기념공원 조감도



이종찬 이사장



사발통문 | 이 사발통문에는 눈여겨볼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이전의 '민란'에서는 상상 할 수 없었던 '군수살해, 감영 점령과 서울 진격'등을 계획하였다는 것이다. 즉 전봉준 등 전라도의 변혁지향세력은 이 단계에서 기존의 농민봉기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확대된 무력봉기를 꿈꾸고 있었던 것이다.

사발통문 봉기계획

연구조사부장 이병규

사발통문은 동학농민혁명의 잉태 단계에서 당사자들이 직접 남긴 유일한 자료이다. 따라서 가치의 중요성만 따진다면 당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육성증언에 비견된다. 그러나 이 사발통문은 형태나 내용이 완전하지 못하고, 진위에 대한 시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료로 인정받기에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사발통문 봉기계획을 세우다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전라도의 변혁지향세력들은 삼례 집회에서 모습을 드러낸 후, 서울의 개서사건, 그리고 금구집회에서 조선사회의 변혁을 위한 일관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런데 1893년 5월 이후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다가, 계사년(1893년) 11월 '사발통문 봉기계획'을 통해 그들의 지향과 목표가 확인된다. 사발통문의 내용을 통해 전봉준 등 전라도의 변혁지향세력들이 강력한 무력봉기 계획을 수립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리 리집강 좌하

우와 같이 격문을 사방에 전하니 여론이 물끓듯 하였다.
매일같이 난망을 부르던 민중들은 곳곳에 모여서 말하되

‘났네 닐어 난리가 닐어 에이 참 잘되었지
그냥 이대로 지나서야 백성이 한사람이나 어디 남아
있겠냐’ 하며 그날이 오기만 기다리더라.
이때에 도인들은 선후책을 토의 결정하기 위하여
고부 서부면 죽산리 송두호가에 도소를 정하고
매일 구름같이 모여 차례를 결정하니
그 결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부성을 점령하고 조병갑을 목베어 죽일 것
- 군기고와 화약고를 점령할 것
- 군수에게 아부하여 백성을 침탈한 탐리를 엄하게
징벌할 것
- 전주감영을 함락하고 서울로 곧바로 나아갈 것
우와 같이 결의가 되고 따라서 군략에 능하고 세사에
민활한 영도자될 장 …… 이하 관독불능

사발통문 서명자 : 전봉준, 송두호, 정중혁, 송대화, 김도삼,
송주옥, 송주성, 황흥모, 최흥렬, 이봉근, 황찬오, 김응칠, 황채
오, 이문형, 송국섭, 이성하, 손여옥, 최경선, 임노홍, 송인호

동학농민군의 기록, 사발통문

사발통문은 동학농민혁명의 잉태 단계에서 당사자들이
직접 남긴 유일한 자료이다. 따라서 가치의 중요성만 따
진다면 당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육성증언에 비견
된다. 그러나 이 사발통문은 형태나 내용이 완전하지 못
하고, 진위에 대한 시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료
로 인정받기에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사발통문
은 본래 ‘주동자가 누구임을 드러내지 않게 하기 위하
여, 관계자의 성명을 등글게 돌려 적은 통문’이란 의미
의 보통명사임에도, 이제는 특정하게 ‘고부모의’만을 뜻
하는 고유명사로 굳어져 버렸다. 사발을 얹어놓고 돌아
가며 서명해 주동자를 구분할 수 없도록 한다는 이러한
형태의 문건은 계조직의 문서에서도 발견된다고 하지
만 이처럼 실제 모습을 직접 보여준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없다.

1968년말 모습을 처음 드러낸 사발통문은 당시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모든 연구자들이 귀중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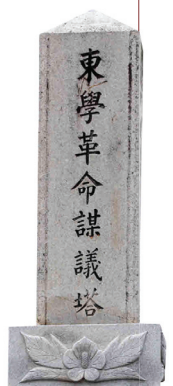
자료의 출현에 크게 고무됐으며 한편으로는 고부농민봉
기의 성격 규정 등 1894년 사건전반이 일시적 혼란 속에
서 재조명되기도 했다. 외솔회는 사발통문 발견 이후 진
척된 연구들을 모아 1974년 나라사랑 15집을 ‘녹두장군
전봉준 특집호’로 제작, 사발통문의 사료적 가치를 공식
화하기도 했다.

이후 사발통문에 대한 다양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다.
서명자 20명과 결의 4개항, 그리고 발견시기와 경위 등
이 논란이 되었다. 또한 「고부민란의 사발통문」(1985)이
라는 논문을 통해 사발통문을 재검토한 신용하 교수는
‘사발통문이 당시 원본도 아니고 고부민란에 대한 회고
록의 일부를 필사해 놓은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장영민
교수는 「1894년 고부민요연구」에서 ‘사발통문의 본 내
용이 1893년 11월 또는 12월에 있었던 정소(呈訴)와 관
련된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사발통문
에 대한 논란은 오랜 기간 동안 매우 광범위하게 전개되
어 오고 있다. 그러나 사발통문이 전적으로 신뢰하기엔
일부 결함을 안고 있는 비교적 허술한 자료지만 동학농
민혁명 전반을 이해하는 데 결코 피해갈 수 없는 핵심적
요소임을 부정하기도 어려운 사료이다. 사발통문의 일정
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라면 ‘사발통문
이 가짜라거나 조작됐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고 내용 자
체가 명백해 당시의 상황을 전해주고 있다면 문제를 위
한 문제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는 어느 향토사학자의 주
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참고문헌

- 신순철 · 이진영, 『실록 동학농민혁명사』, 서경문화사, 1998
김은정 · 문경민 · 김원용, 『동학농민혁명 100년』, 나남출판, 1995

동학혁명모의탑 | 사발통문이 실제 만들어지고 발
견된 정읍시 고부면 신중리 주산마을 입구에는 ‘동
학혁명모의탑’이 세워져 있다. 1969년 4월 15일
완공된 이 모의탑은 서명자 중 한 사람인 송국섭의
아들 송기태 씨 등이 주축해 서명자 20인의 후손들
과 마을 사람들이 합심하여 ‘동학의 혁명정신을 길
이 추모하기’위해 세운 것이다.



“짧게 살아도 가치있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손화중 장군의 손자 **손홍렬**

동학농민혁명의 3대장군은 전봉준 장군, 손화중 장군, 김개남 장군이다. 그 중 손화중 장군은 전라도의 대접주로 활동하였으며 선운사 도솔암 마애불에서 비결록을 꺼낸 일화로 유명하다. 손화중 장군의 묘역은 전라북도 정읍시 음성마을에 조성되어 있는데 바로 이 음성마을에 장군의 손자인 손홍렬 선생님이 지금도 거주하고 계신다. 장군의 후손인 것에 긍지를 느끼며 자손들에게도 항상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주신다는 손홍렬 선생님은 손화중 장군에 대해 말씀해 주실 때 확신에 찬 눈빛을 보여주셨다. 수많은 동학농민군을 이끌고 봉건제도와 외세의 침탈에 맞서 제폭구민, 보국안민의 대의를 전국에 떨쳤던 손화중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후손의 증언으로 생생히 전해들어보자.





Q. 조부님에 대하여 어느 분께서 주로 말씀해 주셨습니까?

A. 조부님께서는 1895년에 35세라는 젊은 나이로 형장의 이슬이 되셨습니다. 물론 저는 태어나기 전이었고, 제 선친께서는 5살이 되시던 해였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시지요. 당시 모든 일을 직접 겪으셨던 조모님께서 선친께 조부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그분이 전해들은 이야기를 저에게 말씀해주신 것입니다.

Q. 그분께서 말씀해주신 손화중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나마 들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A. 조부님은 당시 전라도의 대접주로서 활동하시며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교제를 확장하여 나가셨습니다. 그분이 명절 때나 제사 등의 일로 집에 계시는 때면 항상 전봉준 장군이 찾아와 함께 봉기할 것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전봉준 장군이 조부님보다 9살 연상이었으니 분명 쉬운 일은 아니었겠지만, 거사를 위해서는 동학의 세가 꼭 필요했겠지요. 그러나 조부님께서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 때는 하늘에서 정해주는 것이지 인력으로는 불가한 것이다.'라고 설득하시며 돌려보내곤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거절하시다가 결국 1894년에 함께 봉기할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있으니 우리라도 나서서 바로잡아보자는 뜻으로 승낙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조부님께서 봉기날짜를 잡으시고 준비 후에 무장을 거쳐 백산에서 집결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까지 모두 조부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동학의 접주라는 직책은 교인 100명을 인솔하는 것인데 이런 접주를 100명 거느려야 대접주가 된다고 합니다. 조부님께서는 전라도의 유일한 대접주로 활동하셨으니 통솔권이 대단하셨음은 두말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조부님께서는 황도현 전투까지 본인이 직접 통솔하시고 이후에 전봉준 장군에게 통솔권을 인계하셨다고 합니다. 2차 봉기 당시에는 조부님께서 일본군의 해안상륙을 저지하기 위해 광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나 우금치에서 주력농민군이 패배하고 당신께서도 나주 점령에 실패하자 수하에 있던 농민군들을 해산하시고 광주에서 고창으로 넘어가 부안의 수강산 산당으로 피신하셨지요. 그렇게 피신해 계시던 중 저희 백부님이 관군에 붙들



손화중 장군 묘소

려 인질이 되자 당시 채실지기였던 이봉우 씨에게 자신을 고발하라고 하여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로 압송되면서 재판관을 받고 전봉준 장군, 최경선 장군, 김덕명 장군과 함께 한낱한시에 형을 받으셨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짧게 살아도 가치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부님께서 짧은 삶을 살다 가셨지만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을 사셨다고 생각합니다.

Q. 조모님과 선친께서 동학농민혁명 이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A. 동학농민혁명 이전에는 우리 마을에 손씨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학농민혁명 이후 일본군들이 마을에 손씨 성을 가진 건장한 남성들을 닥치는 대로 살해하여 거의 3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 목숨에 위협을 느끼신 조모님은 옥구(지금의 군산)로 피난을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세상이 조용해지기를 기다리며 식모살이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식들에게도 손씨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이씨나 김씨로 성을 바꾸어 지내신 것이지요. 그런데 당시 조부님께서 5살이셨으니 자신의 성씨가 무엇인지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혹 실수로 손씨라고 말하곤 했는데 그럴 때 마다 조모님께 크게 혼이 나곤 하셨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생사가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집도 절도 없이 지내시다 5년 후에야 고향에 돌아오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Q. 손화중 장순 묘역 바로 근처에서 거주하고 계십니다.

묘역은 어떻게 조성되었습니까?

A. 처음에는 조부님이 사형을 당하신 후에도 가족들이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지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의 소식을 전해들을 방도가 전혀 없었으니까요. 20년 후에야 조부님이 재판관을 받고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 선친께서 가묘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조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바로 옆자리에 묘를 썼지요. 이후에 제가 조부님과 조모님을 합장하였고, 돌레석과 비석을 세웠습니다. 당시에는 묘역으로 가는 길이 조그만 논두렁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시청에서 새로 길을 내 주었고, 작년 겨울에는 장군석도 세워주어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

아직은 때가 아니다.
때는 하늘에서 정해주는 것이지
인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



Q. 조부님께서 혁명에 참여하여 농민군을 이끄신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A. 조부님의 사상과 젊은 나이에 봉건제도와 외세에 대항하여 투쟁하신 것에 대하여 자손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의 형제들은 물론이고 자손들도 동학농민혁명의 3대장군이었던 손화중 장군의 후손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분의 후손으로서 지켜야 할 예절과 행동을 항상 강조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Q.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바라는 점이 있으십니까?

A. 현재 동학농민혁명의 선양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국가의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를 위해 기념일 제정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를 정부가 직접 나서고 참여하는 행사로 거듭나게 할 수 있을 것이며, 현재보다 한차원이 높은 행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여자들의 유족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조명하여 국가적으로 동학농민혁명의 가치관을 인정해 주는 사업이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족들이 선조들에 대한 긍지를 느낄 수 있을 때에야 영령들의 진정한 해원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단이 고인 분들과 유족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충북 북부지역의 최고 동학농민군 지도자 성두한

김양식(충북발전연구원 충북학연구소장)

성두한이란 인물의 활동상을 재조명하여 그가 참여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되새기며 동학의 얼을 이 땅 위에 다시 꽃피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동학농민군 지도자 가운데 이런저런 이유로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인물이 많은데, 성두한(成斗漢, 1845~1895)이 대표적이다. 그는 1895년 3월에 전봉준·손화중 등과 함께 사형을 받았을 정도이니, 동학농민혁명사에서 차지하는 그의 비중을 짐작할 수 있다.

성두한이 주로 활동한 지역은 월악산 주변을 중심으로 한 충북 북부지역이었다. 이곳은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기 1년 전에도 농민봉기가 있었는데, 동학농민군이 본격 활동한 것은 갑오년 7월부터이다. 8월에 이르면, 충북 북부지역은 동학농민군이 거의 장악한 상태였다.

충북 북부지역 동학농민군을 이끈 지도자가 바로 성두한이었다. 그는 갑오년 당시 47세로 월악산 송계리(현재천시 한수면 송계리)에서 농사를 짓던 평민이었다. 그가 언제 동학에 입도하였는지 모르지만, 1893년에 청풍 대접주로서 동학 도소를 설치한 뒤 동학도를 통솔하고 사람들이 모두 존경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1894년 7월에는 단양·제천을 대표하는 동학 집강에 임명되었다. 일본군 역시 충북지역의 쟁쟁한 동학농민군 대장으로 충주의 성두한을 꼽았다.

7, 8월 동안 청풍 일대를 장악하고 일본군과 대치하던 성두한은 9월초에 강원도로 진출하였다. 9월 1, 2일경 제천·청풍 등지의 농민군과 영월·평창 농민군 수천 명이 연합해 험준한 강릉 대화면 모로치를 넘었다. 강릉을 점령하기 위해서였다. 드디어 강릉에 당도, 저항하는 관군을 무찌르고 강릉을 손쉽게 장악하였다. 이때가 9월 5일이었다. 성두한 부대가 강릉으로 이동한 사이 청풍일대는 위기를 직면하였다. 일본군과 보수양반층의 반격이 시작된 것이다. 영춘에서는 9월 3일부터 양반들이 현감·아전들과 합세해 동학농민군에 대한 공격에 나섰다. 9월 17일 충주 가흥에 주둔해 있던 일본군 수비병은 청풍부근의 동학농민군을 공격해 30명을 사살하고 소총 2천정과 화약을 빼앗았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이 강릉 쪽에 있던 성두한에게 전해졌다. 성두한은 급히 부대를 인솔해 남대천을 따라 단양으로 질주하였다. 9월 20일 성두한이 이끄는 동학농민군 1만여 명은 단양으로 쳐들어가 관아를 점령한 뒤, 다시 제천·영춘을 차례로 점령하고 충주 가흥을 습격할 기회를 엿보았다.

9월말 가흥에 주둔해 있는 일본군은 매우 위급한 상황에 놓이자 거듭 지원병을 요청하였다. 일본군 지원병이 충주 가흥에 도착한 것은 9월 29일, 일본군은 10월 1일 청풍지역 농민군과 접전하였다. 이 싸움에서 화력이 부족한 동학농민군이 패하였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동학농민군이 쓰러졌다. 성두한이 이끄는 동학농민군도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강원도 쪽으로 물러난 성두한 부대는 영월 평창 농민군과 다시 연합, 10월 15일 정선을 점령하였다. 강원도 전역은 사실상 농민군 수중이나 다름없었다. 그러자 일본 본국에서 파견된 일본군 1중대는 10월 25일 충주에서 원주를 거쳐 강원도 내륙으로 쳐들어왔다. 드디어 11월 5일, 정선 등지를 점거하고 있던 동학농민군과 일본군은 평창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으나, 결국 농민군이 패하고 말았다. 이들 농민군을 이끌었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성두한이었다.

이 전투를 끝으로 성두한은 어디선가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돼 1895년 3월에 재판을 받았다. 여기서 그는 '청풍 단양 제천 영춘에서 무리를 모아 난을 일으켰다'는 죄

목으로 사형되었다. 이때 함께 사형된 농민군 대장은 전봉준·손화중·김덕명으로, 당시 성두한의 활동과 비중을 짐작할 수 있다.

성두한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다. 장남인 성목현은 해방 이후 빨치산으로 활동하다 충주 살미면에서 처형되었고 그의 둘째 아들 성면현은 빨치산 중대장으로 월북했다고 한다. 지금도 성두한의 증손자 성태일이 청풍 송계리에 살고 있다. 성두한의 자손들이 빨치산을 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면서도 의미심장하다. 빨치산은 누구인가? 소설가 조정래가 쓴 '태백산맥'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빨치산을 그저 '공산당'으로 매도하기에는 우리 가슴을 너무 아프게 한다는 것을 알 것이다.

성두한이 인간다운 세상과 지주적인 민족을 만들기 위해 동학농민혁명의 선봉에 섰듯이, 그 일이 자손들에게도 전해진 것으로 추측한다. 성두한이란 인물의 활동상을 재조명하여 그가 참여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되새기며 동학의 얼을 이 땅 위에 다시 꽃피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성두한의 주요 활동지였던 청풍 신당

농민군의 동향과 일본의 대응

그림 김대환(만화가)

몸이 아프고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움직이기 어려우니
10월까지
기다리십시오.

전 봉준

9월에 재봉기가 이루어 졌으나 농민군의 본격적인 활동은 10월에 이뤄졌다.

또한 충청도일대 농민군의 합류를 기다린 것도 한가지 이유였다.

충청도
농민군.

2대 교주
최시형은
손병희 등에게
전봉준과 협력하여
봉기하라는
명을 내렸다.

지금 시간이
없잖소,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왜를 토벌합니다. !!



그러나 유림을 중심으로 한 민보군이 조직될 가능성이 있기에 모두가 주력 부대에 합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다.

충청도일대에서
봉기한 농민군이 집결하자
최시형은 이를 전봉준에게
알렸다.

삼례에서
출발하니 논
집결 장소에
만납시다.

우리
농민군들 역시
보은에서
노산으로 가겠소.

손 병 희

두 세력이 합류한 후 전봉준은 자신을
'양호창의영수'
(호남과 호서의 창우군우두머리)
라 칭했다.

거의 같은 때
김개남은
8,000명의
농민군을
이끌고
전주에 도착했다.

어디를 보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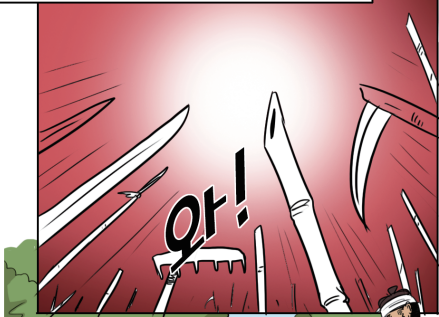
214

농로차단



우리는 후방에서 복상을
준비합니다.
모두 각자 최선을
다하십시오.

10월 중순에 들어 실질적인 체제가 성립되었고 본격적인 복상이 시작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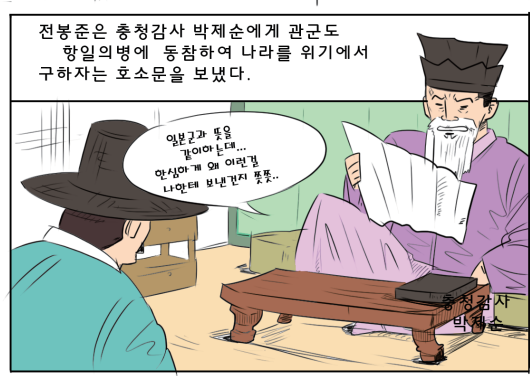


전봉준이 이끄는 주력 농민군은 공주로 향했다.

공주는 바로 서울로
진격하기 위한
전략적 거점지
아니겠소? !!
얼마 안남았소.



우급치는 충청감영으로
넘어가는 고개로서
공주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이곳을 선점하여 기선을
장악할 필요가 있었다.



전봉준은 충청감사 박세순에게 관군도
항일의병에 동참하여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자는 호소문을 보냈다.

일본고개 뚫을
거야하는데...
안심하게 왜 이런걸
나한테 보냈는지 똥똥..

개화파 정권은
농민군 진압에
필요한
군대를 동원할
것을 결정했다.
이두황을
장위영 영관으로
임명해
경기도와 충청도로
내려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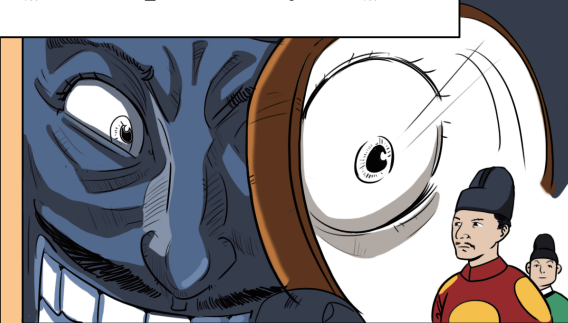
농민군의 씨를 말려버리시오 !!
모조근 무력으로
진압하시오 !!!



일본도 농민군 진압 준비에 들어갔다.
군대를 보내 농민군 진압을 돕겠다고 나섰고,
조선 정부는 이를 받아 들었다.

일본인과 함께
싸우라니...

대원군을 비롯한 조선의 모든 관리는 일본의 감시 대상이
되었고 조선군은 일본의 지휘 하에 놓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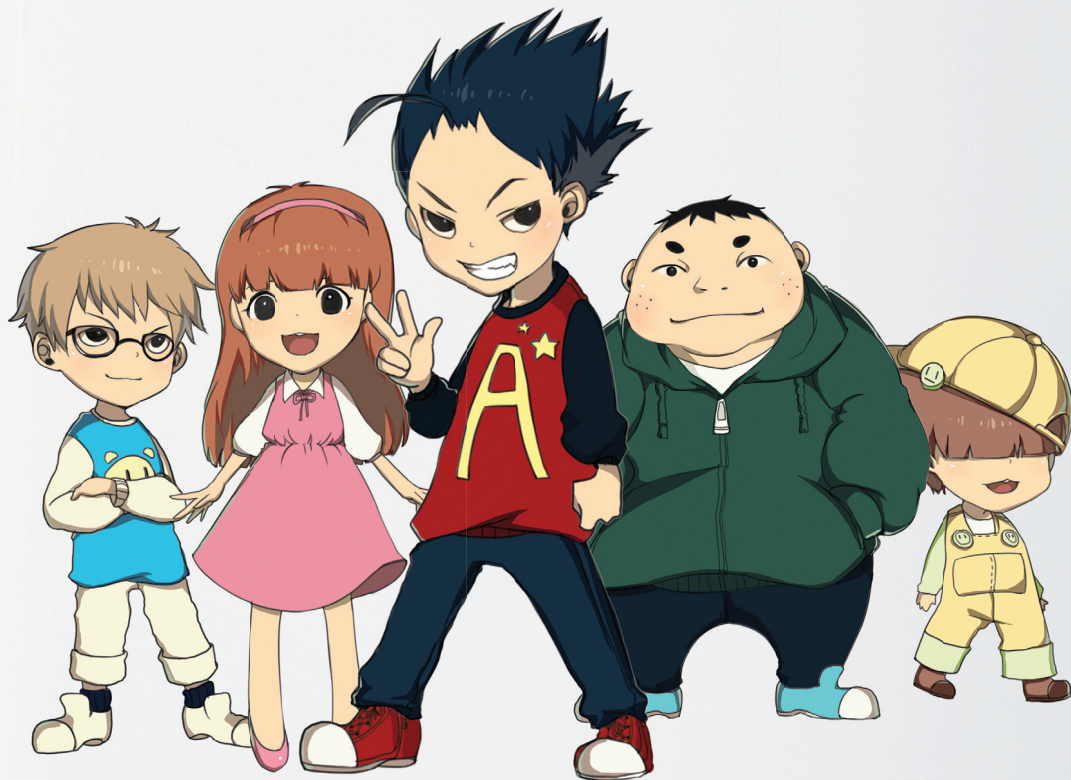


인천에 상륙한 일본군
1개 대대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세 방면으로 나누어 진격했다.

오동단, 동학농민혁명의 흔을 찾아서

동학농민혁명 스토리텔링 공모전은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다양한 스토리를 발굴하고 스토리텔링을 통한 콘텐츠를 생산하여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창출하기 위하여 2012년 8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었다.

전승이야기부분 대상을 수상한 '오동단, 동학농민혁명의 흔을 찾아서'(최성기, 이영근, 황다비 공저, 애니메이션스토리)의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한다.



지난 이야기 - 서울에서 정읍초등학교로 전학 온 전태일은 정읍 사남매와 급속도로 친해지고 이들과 함께 오동단을 결성하여 정읍의 말쑥꾸러기로 자리매김한다. 어느 날 태일은 아이들이 귀신이 나온다고 두려워하는 학교 뒷산 중턱의 집에 찾아갔다가 그곳의 귀신같이 생긴 할아버지가 보여준 위패에서 혼령이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놀라 도망친다. 다음날 오동단 모두가 다시 그곳으로 찾아가 동학농민혁명 5대 장군의 혼령과 만나게 된다. 장군들은 오동단에게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진실과 잃어버린 사발통문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준다. 오동단은 5대 장군과 힘을 합쳐 사발통문을 되찾기로 결심하고 첫 번째 단서가 있는 교통산성으로 출발한다.



오동단과 5대 장군들의 정체를 모르는 동학농민혁명 당시의 무관별장들이 교통산성을 지키기 위해 그들 앞을 막아선 것이다. 아이들은 경계를 늦추지 않는 무관별장들에게 5대 장군들의 이야기와 자신들이 이곳에 온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무관별장들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5대 장군들을 기억해낸다. 그리고 100년 이상의 시간을 넘어 5대 장군들에게 용서를 구한다. 그들도 탐관오리들의 행패와 외세의 등쌀에 바람 앞 등불 같은 국운을 알고 있었지만, 나라의 녹을 먹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군들과 대립했던 것이다. 그리고 무관별장들은 그들에게 뜻밖의 단서를 전해주었다. 오랜 시간 교통산성을 지켜왔던 이들은 과거 조병갑의 아들이 사발통문의 조각을 들고 오는 것을 목격했으며, 그것을 성벽 너머의 우물 안에 숨기는 것을 보았다고 알려주었다. 또한 교통산성의 우물들은 오래전 모두 말라버려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고, 그 중 몇몇은 아예 없어져 버렸다는 이야기도 전해주었다.

이야기를 마친 후 무관별장들은 길을 비켜주었고 오동단과 5대 장군들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성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성 안에는 수십 개의 우물들이 여기저기에 널려 있었다. 오동단과 5대 장군들은 모두 흠어져 사발통문이 숨겨져 있는 우물이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둘러보기 시작했다. 다숨이는 조그만 단서라도 찾아내기 위해 우물 안으로 머리를 숙여 꼼꼼히 살펴보았다. 명석이는 머리를 써야 한다면 들고 있던 역사책을 펼쳐 교통산성에 대한 설명들을 열심히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호동이는 어느새 우물을 찾는 데는 뒷전이고 어디선가 가져온 사과를 크게 한 입 베어 물고 있다. 에디는 아무 말 없이 우물들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 때, 명석이가 아이들에게 외쳤다. “바로 저기야! 세 번째 우물에 사발통문의 조각이 숨겨져 있을 거야. 과거 동학 농민혁명이 끝났을 때에 고부군수 조병갑이 저 세 번째 우물에 농민들의 혼이 살고 있다면서 입구를 막아버렸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막아뒀던 것이 썩어 없어진 것 같아. 조병갑의 아들은 분명 저 속에 사발통문의 조각을 숨겼을 거야!” 오동단과 5대 장군들은 명석이의 말을 듣고 모두 세 번째 우물 앞에 모여섰다. 아이들은 의논 끝에 사발통문 조각을 찾아 우물 밑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했다.

우물은 깊고 어두워서 안이 잘 보이지 않았다. 아이들은 우물 밖에 연결되어 있던 밧줄을 붙잡고 천천히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태일을 선두로 다숨이, 명석이, 에디, 그리고 호동이 뒤를 따랐다. 5대 장군들은 스르륵 몸을 움직여 우물 속으로 미끄러지듯이 내려갔다. 우물의 중간쯤 내려갔을 때 마지막으로 내려오고 있던 호동이의 손이 미끄러져 잡고 있던 밧줄을 놓쳐버리고 바로 밑에 있던 조그만한 에디의 어깨 위로 떨어졌다. 그 바람에 에디마저 밧줄을 놓쳐버렸고, 아이들은 도미노처럼 동굴 밑으로 우르르 떨어져버렸다. 잠시 후 아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바라보니 동굴 밑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은 공간이 펼쳐져 있었다. 5대 장군은 오동단 앞에 작은 불빛을 비춰주었고 오동단은 흠어져 사발통문 조각을 수색해 나갔다. 잠시 후 태일은 멀리 작게 반짝거리는 어떤 물체를 발견하고 그곳으로 달려갔다. “찾았어! 바로 여기야! 여기에 우리가 찾던 조각이 있어! 빨리 와봐! 장군님들! 어서요 어서!!” 태일이 손가락 끝으로 가리키고 있는 곳에 사발통문의 한 조각이 땅속에 반쯤 드러나 있었다. 태일은 황급히 땅에서 사발통문 조각을 파내들고 활짝 웃어보였다.

그 순간 아이들은 누군가가 우물로 내려오는 인기척을 느꼈다. 조덕배의 일당이 그들의 뒤를 아오고 있었던 것이다. 태일은 사발통문 조각을 품에 안고 주위에 나갈 곳이 있는지 재빨리 두리번거렸다. 명석은 책을 꺼내들고 아까 우물의 단서를 찾았던 페이지를 급하게 읽어보았다. “이 우물들은 과거엔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던 거래. 아마 저쪽으로 가면 다른 우물로 나갈 수 있을 거야.” 오동단과 5대 장군은 오른쪽으로 달려갔다. 그쪽에는 명석이의 말대로 다른 우물의 입구에서 빛이 비춰 들어오고 있었다. “이쪽으로 올라가면 나갈 수 있을 거야!” 5대 장군들은 아

이들을 먼저 우물 밖으로 내보내고 뒤따라 올라가기 시작했다. 김개남 장군이 마지막으로 올라가려던 차에 어느새 조덕배 일당이 바로 뒤까지 바짝 아왔다. 그러나 혼령인 김개남 장군은 조덕배 일당을 막을 수 없었다. 그는 고민 끝에 위에 올라가 있던 호동의 육체를 빌리기로 했다. 호동의 몸에 빙의한 김개남 장군은 우물로 뛰어내려 조덕배 일당을 막아섰다. “꼬마야, 네 친구가 사발통문 조각을 가지고 있지? 너는 불일 없으니 얼른 저리 비켜!” 조덕배는 호동의 모습인 김개남 장군을 어이없다는 듯이 바라보며 슬쩍 밀어냈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조덕배 일당은 교통산성에서 동학농민군을 이끌었던 바로 그 김개남 장군이 이 자리에 있는 줄도 모른 채 무시무시한 표정으로 협박하여 쫓아 내려 했다. 김개남 장군은 그런 협박에도 아랑곳없이 무쇠 같은 팔을 휘둘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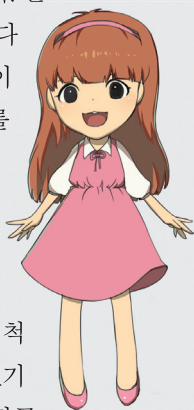


순식간에 조덕배 일당을 혼쫓내 주었다. 호동이의 몸에서 나오는 김개남 장군의 무시무시한 힘에 조덕배 일당은 모두 차가운 우물바닥에 드러누운 신세가 되었다. 그들을 모두 제압한 뒤 호동과 김개남 장군도 재빨리 우물 위로 올라왔다. 오동단과 5대 장군들은 조덕배 일당이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도록 힘을 합쳐 산성에 있던 커다란 돌을 옮겨와 우물의 입구를 막아버렸다.

남원 교룡산성에서 첫 번째 조각을 손에 넣은 5대 장군과 오동단은 다음 조각을 찾기 위해 지나가던 트럭의 짐칸에 얻어 타고 덜털대는 길을 지나 백산으로 향했다. 전봉준 장군은 백산으로 가는 내내 사발통문 조각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태일은 전봉준 장군에게 물었다. “장군님, 뭐라고 적혀있는 건가요?” 전봉준 장군이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하였다. “부정한 권력에 맞서 우리와 함께 뜻을 모았던 이들의 이름이란다. 모두 마지막까지 처절하게 싸웠건만……. 이들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구나.” 다른 장군들도 그들을 떠올리는 듯 입을 꼭 다물고 있었다. 아이들은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들을 올려다보았다.

부안에 도착한 후, 차에서 내려 백산을 찾아가던 중 누군가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크게 요동을 쳤다. 호동이 울상이 되어 말했다. “배고고 죽겠다아~! 점심 먹을 때도 한참 지났다가!” 명석 이도 배가 고픈지 일행들을 둘러보며 얘기했다. “뭘 좀 먹는 게 좋겠어. 이대로는 사발통문을 다 찾기도 전에 배고파서 쓰러지고 말거야. 에디와 내가 근처에서 가게를 찾아볼게.” 에디와 명석이 가게를 찾아가고 묵묵히 있던 손화중 장군과 최경선 장군이 그 뒤를 따랐다. 근처 가게에서 빵과 우유를 한가득 구입한 에디와 명석은 일행이 있던 곳을 찾아가다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여기가 어디지? 아까 있던 곳을 못 찾겠어.” 울상이 된 명석에게 손화중 장군이 말했다. “이 쪽이다. 따라와라.” 손화중 장군의 뒤를

따라 명석이와 에디 일행은 백산을 찾아 걸었다. “장군님은 어떻게 길을 뵈히 아세요?” 명석이 손화중 장군이 길을 척척 찾아내는 것을 보고 신기해하며 물었다. 손화중 장군은 앞을 보고 걸으며 대답했다. “산 주변의 모습은 모두 변해 버렸지만, 길만큼은 아직도 생생하구나. 백산은 우리들이 부정한 권력에 대항할 뜻을 모아 집결하던 곳이란다. 그 날 수많은 농민군들이 모여들어 ‘앞으면 죽산, 서면 백산’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지.” 손화중 장군은 눈을 감고 그 날을 회상했다.



다음호에 계속

www.1896.or.kr

제1회
**동학농민혁명
스토리텔링 공모전**

문화체육관광부 특수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학농민혁명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주관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제1회 동학농민혁명 스토리텔링 공모전 개요

구분	내역	비고
공모주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공모분야	① 전통문화유산(구비설화, 민요, 민담) ② 개화기(1894~1910) 역사, 문화
	제출자격	① 전라북도(전라북도) 주민(주민등록상 주소지) ② 거주지(전라북도) 주민(주민등록상 주소지) ③ 다른 읍면동 주민(주민등록상 주소지)
	공모기간	공표 2012. 8. 1(화) 접수 2012. 8. 20(월) ~ 8. 28(수)
심사위원	장소희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부)	김민수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부)
	김민수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부)	김민수 (전라북도 문화체육관광부)



강정석(마산무학여자중학교 교사)

1894년! 그날을 되새기며 민주주의를 생각하다

“이번 답사활동을 계기로 동학농민혁명이 제폭구민 보국안민(除暴救民 保國安民)을 통한 민주주의의 성장의 뿌리요 척양척왜(斥洋斥倭)를 통한 자주성을 키워준 텃밭이 되었음을 아이들이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동학 농민들의 의식이 성장하여 3.1운동과 나아가 3.15의거와 4.19혁명, 10.18부마항쟁과 6월 항쟁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가기 위해 희생한 선배들의 고귀한 정신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준 것에 다시 감사드립니다.”



갑오세 가보세…….

듣기만하여도 심장을 두드리는 듯한 울림이 있음은 젊은 날부터 신봉한 민주와 민족 사랑의 감성이 아직은 내게 남아 있기 때문일까? 20여년 전 이틀간 돌아다녔던 유적지를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과 함께 함은 또 다른 특별함이 있었다. 100차례에 걸쳐 학생들과 함께 답사를 다니면서 그들과 꼭 와보고 싶었지만 동학농민혁명이란 하나의 주제로 정읍답사를 기획하기에는 부담이 있었기에 마음으로만 간직한지 20년이 흘러 버렸다.

삼월 중순 책상위에 놓인 종이 문서 한부가 20년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단비가 되었다. 재단이 설립되었다는 것, 문화관광부의 특수법인이 되었다는 것도 문서 한부를 통해서야 알았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어제의 역사를 일깨워 미래의 가치를 창조한다는 슬로건을 걸고 시행하는 ‘테마가 있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활동을 기획하였고, 이번에 우리학교가 그 수혜자가 될 수 있었다.

이번 답사활동을 계기로 동학농민혁명이 제폭구민 보국안민(除暴救民 保國安民)을 통한 민주주의의 성장의 뿌리요 척양척왜(斥洋斥倭)를 통한 자주성을 키워준 텃밭이 되었음을 아이들이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동학 농민들의 의식이 성장하여 3.1운동과 나아가 3.15의거와 4.19혁명, 10.18부마항쟁과 6월 항쟁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가기 위해 희생한 선배들의 고귀한 정신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준 것에 다시 감사드린다.

답사 담당선생님의 헌신적인 모습과 해설사 선생님의 열정이 학생들에게 와 닿았는지 반응이 아주 좋았다. 1994년 100주년 행사 때 두 번째로 방문한 정읍의 들녘에 퍼진 함성과 기억들이 함께한 학생들의 뇌리에도 떠올라 주길 기대해 본다. 답사활동도 그 지역의 먹거리여행과 결합해야만 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잊지 않은 조선동네 송참봉 집도 아이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좋은 요소였다. 더하여 재단이 멋지게 제작한 컬러 답사 안내집과 이를 미리 발송해 주신 친절함 덕에 학생들의 관심을 더 끌 수 있었던 점도 좋았다. 답사 활동지가 제작되어 해설과 조화를 이룬다면 더 알찬 활동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마산 3.15기념사업회가 2013년부터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국립3.15민주묘지 당일 2시간 버스지원, 마산시까지 유적지 당일 지원과 마산-광주(5.18국립묘지)-남원(김주열묘소)을 잇는 장거리 답사 지원 활동을 기획한 것도 동학농민혁명재단의 열정이 준 영향인가?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교육부가 역사학습의 부채를 가슴 아파하며 역사 교과시간을 확대하거나 교과목을 독립시키고, 공무원 시험에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넣는 등의 노력을 하지만 이러한 노력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많다. 그 부족함을 메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 행하는 사업과 같은 것들 일 것이다.

학생체험의 확대, 나아가 전국의 중등의 역사과·사회과·도덕과·국어과 교사나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하계, 동계 연수를 실시하여 동학농민군들의 삶과 그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교사들이 느끼게 되면 학생들과 교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무쪼록 우리 학생들이 받은 혜택을 더 많은 학생들에게 주어지기를,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가 존중받는 세상이 되어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

동학농민혁명이 제폭구민 보국안민(除暴救民 保國安民)을 통한 민주주의의 성장의 뿌리요 척양척왜(斥洋斥倭)를 통한 자주성을 키워준 텃밭이 되었다.

”





동학농민들의 흔적이 담긴 정읍을 다녀와서

이호정 (마산무학여자중학교 3학년 1반)

“앉으면 죽산, 서면 백산 으로 유명한 백산성터. 47m에 불과했지만 배가 부른 우리들은 헉헉댔다. 하지만 동학정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자 배들평야가 한 눈에 들어왔고 교통의 요지라는 말이 정말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백산을 내려온 우리는 주산마을로 향했다.”



고등학생들이 등교하는 아침 7시 10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주최하는 답사에 참여하기 위해 학교로 나섰다. 교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엄마 차가 아닌 버스로 이동하는 평소와는 조금 다른 수요일이 시작되었다.

전라북도 정읍. 오늘의 답사지 이자 동학농민혁명의 근원지, 그곳으로 우리 학교 40여명의 학생들이 출발하였다. 집을 나서며 쌀쌀해서 어찌지? 하는 내 걱정은 햇살마저 따뜻하게 반겨주는 정읍에 도착하면서 지워졌다.





처음 도착한곳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었다. 그곳에서 우리를 안내해주실 해설사 선생님을 만났다. 학교 교과서에서 접한 내용들이 가끔 보여서 반갑기도 했고, 내가 아직 동학농민혁명에 대하여 많이 몰랐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많이 보고 느껴야겠다고 생각 했다. 키가 작은 전봉준 장군이셨지만, 체포 될 당시에도 뚝뚝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기가 좀 죽었던 것 같다. 배가 고프을 때 쯤 송춘봉 조선동네로 이동해서 점심을 먹었다. 점심도 맛있었지만, 점심 먹고 나서 그네뛰기, 널뛰기를 하며 휴대폰을 잠시 내려

놓고 재미있게 놀 수 있었다.

맛있는 점심으로 배를 채운 우리를 기다리는 다음 장소는 백산이었다. “앞

오면 죽산, 서면 백산”으로 유명한 백산성터. 47m에 불과했지만 배가 부른 우리들은 헉헉댔다. 하지만 동학정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자 배들평야가 한 눈에 들어왔고 교통의 요지라는 말이 정말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백산을 내려온 우리는 주산마을로 향했다. 해설사 선생님께서는 원래 이곳의 이름은 추산마을이었는데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우리민족의 정신을 꺾기위해 주산(舟散)마을로 이름을 바꿨다고 하셨다. 무명 동학농민군 위령탑. 사발통문 작성지, 동학농민혁명 모의탑을 거쳤는데, 개인적으로 이번 답사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가 바로 무명동학농민군 위령탑이었다. 약간은 무서운 분위기를 풍겼던 그 탑에서 묵념을 할 때는 잠시나마 진지하게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웅장한 조상님들의 기운을 느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 키가 작은 전봉준 장군이셨지만, 체포 될 당시에도 뚝뚝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기가 좀 죽었던 것 같다.

”

들었다.

전봉준 장군의 고택도 방문했다. 생각했던 것 보다 초라했다. 하지만, 그 초라한 집의 무슨 흠이 될까. 우리 역사에 한 획을 그으신 분이 지나갔던 흔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겨울방학 때 퇴계이황선생님께서 제자를 가르쳤던 곳을 답사했는데, 그곳도 참 초라했다. 하지만 그 곳에서 수많은 관직진출자들이 나왔고, 가르침을 받기 위해 마당 앞에 서서 학문을 익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전봉준 장군은 퇴계 이황선생님처럼 고위 관직에 오르신 분이 아니었다. 초라한 집은 이황선생님처럼 검소함을 뜻하는 것도 아닌 그저 전봉준이라는 한 평민 신분의 인물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 당시 힘들었던, 자칫하면 의미 없는 발버둥이 될 수도 있었던 그 일을 실행하셨다는 것이 참 대단하게 느껴졌다.

그 외 전봉준 장군 단소 등 여러 곳을 보고 황토현 전적지에서 마친 답사. 조금 힘들기도 했지만,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주신 선생님들 덕분에 끝까지 재미있게 답사를 마쳤다. 그저 학교 대신 가는 가벼운 답사라고 생각했었지만, 답사를 마치고 나서는 동학농민혁명이라는 단어가 역사가 주는 또 하나의 길에 새겨져 있었다.

중학교 3학년의, 중학교 생활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답사를 하게 된 것은 참 감사한 일이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고, 후손인 우리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도록 애써주신, 이름 없이 희생해주신 조상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세상을 꿈꾼
민중의 지도자 전봉준
그의 마지막 119일,
그 고난의 기록

겨울잠 봄꿈



동학농민혁명에 대하여 다룬 소설은 적은 편이 아니다. 『겨울잠, 봄꿈』의 한승원 작가도 이미 1994년에 출간된 『동학제』에서 동학농민혁명에 대하여 다룬 경험이 있다. 『겨울잠, 봄꿈』은 전봉준 장군의 시선에서 당시의 현실을 바라보며 그의 고뇌와 갈등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그 시점은 피노리마를 김경천의 집에서 체포되어 한양까지 압송되는 전봉준 장군의 마지막 모습이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대군을 호령하며 황토현에서, 황룡전투에서 파죽지세로 관군을 물리치던 장군으로서의 모습이 아닌, 두 손을 결박당하고 입에는 재갈을 물고 두 다리는 몽둥이에 맞아 산산히 조각난 패장의 모습에서 작가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

피노리에서 피체당하다

전봉준 장군은 몇 명의 수하만을 데리고 피노리로 향하고 있다. 기개 높은 장군의 모습은 소설의 초입부터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농민군들은 일본의 신식무기에 허수아비처럼 쓰러져 나갔고 그는 패장이 되었다. 김정천에게 가자는 전봉준 장군의 말을 듣고 따르던 수하 중 하나인 양해일은 예수와 유다를 떠올린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성자가 된 예수와 만고의 배신자로 낙인찍힌 유다. 그는 전봉준 장군이 예수가 되기를 바란다. 전봉준 장군도 마찬가지로 담담히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다. 총탄이 날아드는 전장에서 서로 목숨을 의지하며 전진하던 어제의 농민군들은 상금과 관직에 눈이 멀어 그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그를 사형시키기 위해 서울로 향하는 가마의 말이 된다.

서울로 압송당하다

가마는 서울로 향한다. 종로 네거리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자신의 피를 뿌리며 죽는 것이 전봉준 장군의 마지막 바램이다. 그러나 그마저 그가 원치 않는 희생을 강요한다. 민초들에게 강탈해 온 것이 분명한 음식을 살라내기 위해 먹어야 한다. 가마꾼들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되면 일본군에게 잔혹하게 죽임을 당한다. 그가 머물렀던 장소에도 피비린내가 가시지 않는다. 동학농민군의 잔당들이 전봉준 장군을 구하기 위해 습격할 것을 두려워 한 일본군들이 지나는 길마다 사람의 흔적을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선택한 죽음의 길이 또 다른 희생을 야기하는 것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는 더욱 괴로워한다.

이토의 유혹에 시험당하다

이토 겐지는 일본으로 건너가 이토 히로부미의 양아들이 된 인물이다. 그는 여정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전봉준 장군을 회유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일본의 유력자 중 장군을 살려주겠다는 자가 있다. 나와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면 살아남을 수 있다. 미국과 영국에 유학을 다녀올 수 있다.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여 조선을 개화하는데 힘이 되어달라. 파우스트를 유혹하는 메피스토펠레스와 같이 그는 끊임없이 전봉준 장군의 결을 맴돈다. 그러나

악마의 유혹에 영혼을 팔긴 파우스트와 달리 전봉준 장군은 ‘겉보리 닳되’하며 우는 새의 일화를 들려주며 자신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잡는다. 살아서 악당이 되기보다 죽어서 영웅이 되는 길을 택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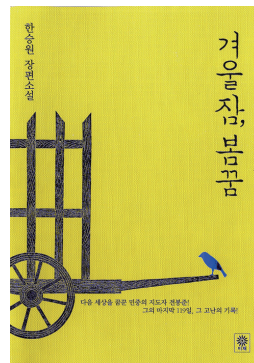
서울에서 재판 받고 사형당하다

천신만고 끝에 서울로 도착해 영사관에서 취조를 받으면서도 전봉준 장군은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잃지 않는다. ‘나는 조선의 백성으로서 조선의 당연한 형벌을 받을 것이다.’ ‘조선의 법에 따라 죽을 일을 저질렀으므로 죽는 것이 당연하다. 후회하지 않는다.’

범무아문에서 재판을 거친 후 그의 육신은 죽어 땅에 뿌려진다. 죽음으로서 그의 대업은 비로소 완성된다.

혹자는 전봉준 장군의 피체와 압송당시의 이야기만을 다루고 있기에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이들은 접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간 중간 장군의 회상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전체적인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기에 전개과정을 이해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

본 소설에서 전봉준 장군은 참형을 당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교수형이 언도되었다. 그는 교수형을 받으며 ‘너희는 나를 죽일진대 밝은 종로네거리에서 목을 베어 오고 가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옳은 일이지가 어찌 나를 캄캄한 적굴 속에서 죽이느냐’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작가는 그의 마지막 바램을 소설에서나마 이루어주고 싶었던 것일까?



이 소설은 1894년의 겨울, 패주한 동학군의 지도자 전봉준이 밤을 도와 잠행하다가 민보군에게 붙잡혀 한양으로 끌려가는 천리길의 기나긴 참담한 여정을 서술한 것이다. 그 여정에서 전봉준이 만난 개 같은 세상을 보면서 나는 진저리치며 구역질을 하기도 하고 울기도 했다.’ -작가의 말



동학정

부안, 김제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지난 2010년 준공된 새만금 방조제에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새만금의 내부 공사가 완공되는 2020년 이후에는 이와 맞닿은 부안과 김제에 더욱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 당시는 지금의 상황과 반대였다. 부안의 농민군들은 1894년 봉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부안관아를 점령하였으며 황토현전투를 준비하기 위해 부안을 빠져나와 고부에 주둔하였다. 김제의 농민군도 전주성을 점령하기 직전에 금구 관아를 점령하고 전주로 나섰다.

동학농민혁명의 시작과 동시에 봉기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보였던 부안, 그리고 우금치의 처절한 패배 이후에도 전열을 가다듬어 일본군과 관군에 대항하였던 김제에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 119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여전히 살아 숨 쉬는 부안과 김제의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되짚어보자.





부안관아 터-문루



부안백산

부안관아 터

어머니 손길 같던 봄벌의 파사로움이 찰나의 순간처럼 지나가고, 긴 겨울에 자신의 힘을 온전히 펴지 못한 것이 한이라도 됐다는 듯 5월 말에 채 되기 전부터 햇살의 기세가 등등해졌다. 아름다운 것은 길지 못해 안타깝다지만 역시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다움을 뽐내는 봄이 갈수록 빠르게 지나간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연이어 내린 비를 맞고 기운차게 우거진 녹음을 바라보며 여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다. 아침부터 날이 흐리다. 예보로는 일주일간 흐린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 했지만, 오늘 오후에는 구름이 물러나길 빌어본다. 답사의 시작이다. 생거부안(生居扶安)이라는 말이 있다. 오래전 부안을 방문했던 어사 박문수가 '어염시초(물고기, 소금, 뽕나무)가 풍부해 부모를 모시기에 좋으니 생거부안이로다' 라고 했던 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그만큼 살기 좋은 곳으로 유명했던 부안이었기에 더욱 부정부패의 질곡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동학농민혁명 발발직후, 금구로 진격하였던 농민군들 중 일부가 부안으로 들어가 그곳의 500여명의 농민군과 합세해 부안관아를 점령하였다. 또한 농민군의 주력부대가 금

구까지 진격하였다가 감영 포군이 몰려온다는 소식에 태인까지 후퇴하였을 때도 그 중 일부가 부안의 동헌을 공격해 현감을 구금하였으며 공형들에게 장(杖)을 쳤는데 그 모습이 마치 재판하는 듯 했다고 전해진다. 지금의 부안관아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몇 들어지게 지어진 부안군청의 뒤편에 부안관아로 드나들던 문루의 흔적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갑오년의 농민군들은 이곳에 세워져있던 문루를 지나쳐 자신들의 개혁의지를 알릴 하나의 역사를 만들었을 것이다.

관아의 건물이 있던 곳에는 교회가 들어서 있다. 현재는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으나 문루의 방향과 비교해보면 이곳에 관아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19년이라는 세월이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모습을 지워버렸다는 생각에 씁쓸함이 느껴진다.

백산

'앉으면 죽산 서면 백산'이라는 말이 있다. 백산대회 당시 수많은 농민군들이 백의에 죽창을 들고 백산으로 모여들어 이들이 앉아있으면 죽창이 무수하여 대나무로 이뤄진 산처럼 보였고, 일어나 있으면 백의에 뒤덮여 하얀 산처럼 보였다는 의미다.

백산은 배들평야에 솟아난 해발 47미터의 조그마한 야산으로 부안 동쪽 끝의 백산면에 위치해있다. 이런 조그만 산을 면의 이름으로 쓸 이유가 있는가? 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막상 백산에 오르고 난 후에는 모두가 그 이유를 납득한다. 백산의 주위로 는 배들평야와 김제평야가 끝없이 펼쳐져 있어 지평선이 보일정도로 탁 트인 시야



백산창의비

에 절로 감탄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곳은 마한시대부터 토성이 쌓여져 있던 곳으로, 축대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으며 삼국시대의 토기와 기와조각들도 많이 발견되었다. 또한 백제의 왕자 부여 풍이 백제부흥운동을 전개할 때 일본의 구원군을 맞이한 곳이며, 동학농민혁명 당시 농민군의 전열을 정비하고 격문으로서 이들의 포부를 밝혔던 백산대회가 열렸던 장소이다. 백산은 이처럼 예로부터 역사의 현장이었기에 1976년에 전라북도 지정기념물 제31호로 지정되었으며, 1998년 국가 사적 제409호로 승격되었다.

고부봉기 이후 전봉준 장군은 인근지역에 격문을 전파하여 전국적인 혁명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큰 호응이 없었으며, 신임군수 박원명이 유화적인 태도로 민심을 다스리자 대부분의 농민군들은 해산하였다. 그러나 안핵사 이용태가 박원명을 질타하고 고부봉기 참여자들을 잔혹하게 탄압하자 전봉준 장군은 소수의 측근만을 거느리고 고부를 빠져나왔다. 그리고 3월 20일 무장에서 기포한 후 다시 고부로 들어가 농민군의 진영을 정비하기 위하여 백산에서 대회를 가진 것이다. 주위를 감상하며 천천히 산을 오르는 데도 5분도 채 되지 않아 정상을 밟았다. 막히는 곳 없이 불어오는 바람이 기분 좋게 선선하다. 주변 경치를 바라보며 다시 한 번 감탄한다. 한 두 번 방문한 것도 아닌데 오를 때 마다 감탄사가 나오는 절경이다. 정면을 바라보니 동학혁명백산창의비가 보인다. 1989년 동학혁명백산기념사업회가 백산대회를 기념하기 위해 건립한 비로 당시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던 박영석이 비문을 지었다. 동학농민혁명백산봉기기념사업회에서는 매년 4월 26일 열리는 백산봉기 기념대회 중 탐에 헌화하고 있다. 창의비 뒤편에는 동학정이 세워져있어 이곳에서 주변의 풍경을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다.

“

백산대회 당시 수많은 농민군들이 백의에 죽창을 들고 백산으로 모여들어 이들이 앉아있으면 죽창이 무수하여 대나무로 이뤄진 산처럼 보였다.

”



금구 장터



금구 관아터

금구 장터, 금구 관아터

오를 때와 마찬가지로 수월히 백산을 내려와 김제로 향한다. 다행히 예보만큼은 날이 흐리지 않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구름이 걷혀갔다. 김제에 들어서서 가장 먼저 금구 관아터로 향한다. 금구면은 조선시대에 금구현으로 독립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김제시로 통합되었다. 이곳은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가운데 김덕명 장군과 김인배 장군이 배출되었고 전봉준 장군의 주요 활동무대 중 한 곳으로 동학농민혁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깊은 인연을 간직하고 있다. 농민군들이 전주로 향하고 있을 무렵 그 중 일부가 원평에서 금구로 이동하여 금구 관아를 점령했다고 한다. 이때 전투 없이 무혈입성 하였는데 이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가 전해져온다. 농민군들은 곧장 관아로 향한 것이 아니라 금구면에 위치한 함성재에 올랐다. 그리고 그곳에서 관아를 향해 고함을 질렀고, 그 소리에 놀란 관원들이 모두 도망가 버려 손쉽게 관아를 점령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함성재라는 명칭도 이 일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지금의 금구 관아터에는 금구면사무소와 금구초등학교가 들어서 있으며 전혀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안내판이 세워져 오고가는 이들이 이곳에 금구 관아가 있었다는 것과 동학농민군의 지혜로운 일화에 대해 알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금구 관아터 바로 앞은 금구장터가 들어서던 곳이다. 양호초토사로 임명된 홍계훈은 전주 감영의 군사책임자들을 농민군들과 대통했다는 구실로 하나씩 처형하기 시작했다. 금구 장터에서는 전라감영의 수교 정석희와 체포된 농민군들을 참수하여 가로수에 매달아 두었다고 한다. 당시 가로수들은 대부분 베어지고 한 그루만 남아 외로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그 때의 참상을 상상해 보기에는 충분하다.

금구 · 원평도소

금구 원평 지역에서는 김덕명 장군이 중심이 되어 폐정개혁을 추진하였다. 금구 원평도소는 원평의 등록개라는 사람이 신분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며 농민군에게 무상으로 헌납한 곳이다. 농민군은 이곳을 도소로 이용하였으며 전봉준 장군이 이곳에 머물렀다는 기록도 남아있다.

현재 건물이 노후화되어 보수가 필요한 상황으로 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 범시민모금운동을 통한 건물 구입을 추진 중이며 전라북도에서는 문화재청에 각 시군별 문화재 긴급매입비를 요청하여 부지를 매입해 관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원평 구미란 전적지

공주 우금치에서 농민군은 처절한 패배를 당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논산 황화대를 거쳐 금구로 들어왔다. 전봉준 장군은 원평에 진을 치고 추격해온 일본군과 관군을 맞아들었다. 그러나 압도적인 화력의 차이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고 또 다시 패배해 태인으로 후퇴한다.

구미란 전적지를 찾았을 때 날이 완전히 개어 따뜻한 햇볕에 마음까지 풀어졌다. 지금의 전적지는 당시의 모습을 전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평화로운 시골마을이다. 정자에서



금구 · 원평도소



원평 구미란 전적지

담소를 나누시는 어른들의 말씀을 엿들어보니 ‘우리 구미란이…….’라는 말로 화두를 꺼내고 계신다. 주변을 몇 컷 찍고 병풍처럼 펼쳐진 야산을 바라보며 전봉준 장군이 이곳에서 어떤 식으로 진을 치고 관군과 일본군에 대비했는지 상상해본다. 반복되는 전투와 패배 중에도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여 농민군들을 복돋고 진열을 정비하는 데에는 얼마나 강한 정신력이 필요한 것일까?

구미란 전적지에서 멀지않은 곳에는 무명농민군 묘역이 있다. 소나무 숲속에 약간 볼록하게 솟아있는 30여개의 무덤으로, 지역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구미란 전투 당시 전사한 농민군들의 무덤이라고 한다. 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는 무명농민군의 묘지조성사업을 진행 중이며 사적지 지정을 신청해 둔 상태이다.

위령각, 김덕명 장군 추모비

구미란전적지를 뒤로하고 김덕명 장군 추모비를 찾아 차를 돌린다. 네비게이션이 안내해준 대로 찾아가니 좁은 언덕길을 따라 조금 더 걸어 올라가야 했다. 언덕 위에는 커다란 대문이 활짝 열어놓은 주택이 서있어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대문을 약간 지나치니 좌측에 두 개의 비가 세워져 있는 것이 보인다. 오른쪽의 비는 원평 출신의 독립운동가 이종희 장군 추모비이고 왼쪽의 비가 김덕명 장군의 추모비다.

김덕명 장군은 일찍 동학에 입도하여 동학농민혁명 당시 원평의 대접주로 활약하였으며 원평 구미란 전투와 태인 전투에서 끝까지 항전하였다. 그 후 1895년 1월에 태인에서 피체되어 전봉준, 손화중, 최경선 장군등과 함께 51세의 나이로 형장의 이슬이 되었다.

사진을 몇 컷 찍고 있으려니 인기척을 느끼고 나오신 주인어르신인 인사를 건네신다. 사정을 말씀드리고 늦게나마 촬영허락을 구해보니 흔쾌히 허락하시고 바로 옆에 있는 위령각이 무명동학농민군의 혼령을 위로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라 덧붙이신다. 마치 정자 같은 생김새의 위령각에는 전봉준 장군, 김덕명 장군, 무명 동학농민군, 독립운동가 이종희, 기미독립만세운동 항일투사 등의 위패가 모셔져 있으며, 매년 원평전투가 일어난 11월 25일에 맞춰 위령제를 지내고 있다.

촬영을 마치고 이동하려는 차에 주인어르신께서 위령각과 마주보고 있는 최순식 선생 공적비를 소개해 주신다. 최순식 선생은 김제지역의 향토사학자로 지역발전협의회와 향토문화연구회 등을 조직하여 향토사 연구에 전념하였으며 국사편찬위원회로부터 사료조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종신토록 김제지역의 사료발굴에 몸 바쳤다. 또한 구미란전투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를 매년 주관하여 개최하였으며,

현재는 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에서 이를 이어오고 있다. 최순식 선생은 2008년 1월에 타계하셨고 그분의 공적과 뜻을 기리기 위해 2008년 10월에 공적비를 건립하였다.

답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곰곰이 생각에 잠긴다.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지 119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10년이면 강산이 바뀐다는데 벌써 11번이 바뀌고 한 번 더 바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긴 시간동안 동학농민혁명정신이 잊혀지지 않고 이어져 내려올 수 있기에는 얼마나 많은 이들의 노력이 필요했을까? 그 노력이라는 벽돌이 하나하나 쌓여 마침내 집을 이루었을 때를 그려본다.



위령각



김덕명 장군 추모비

“ 김덕명 장군은 일찍 동학에 입도하여 동학농민혁명 당시 원평의 대접주로 활약하였으며 원평 구미란 전투와 태인 전투에서 끝까지 항전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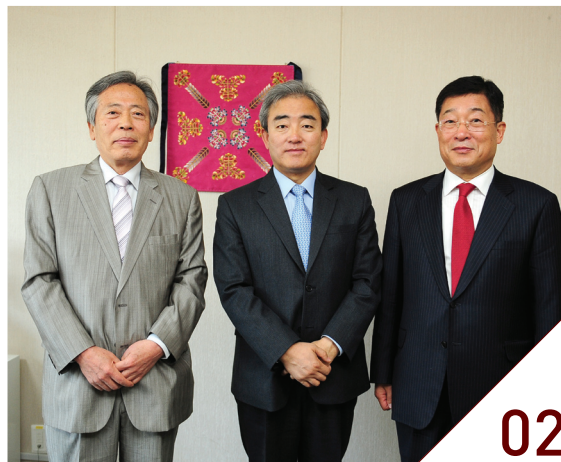
기념재단 시발점



01

포럼회원과 함께하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 실시

전주와 장흥지역의 동학농민혁명포럼회원 100여명은 지난 4월 14일(일) 포럼회원과 함께하는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에 참여하였다. 포럼회원들은 동학농민혁명 관련 전시시설 및 유적지를 둘러보며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답사에 참여한 안선주 포럼회원은 '1894년 그 날에 살기좋은 세상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은 분들을 생각하면 고맙고 또 고마운 마음이 든다. 그 분들의 정신을 다시 한 번 느껴보고 싶을 때면 언제든지 방문하겠다'라고 말했다.



02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김대곤 이사장 취임

지난 4월 19일(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진룡)은 김대곤 전(前) 원광대 부총장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으로 임명하였다. 김대곤 이사장은 동아일보사 기자, 청와대 비서관,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국무총리 비서실장, 원광대 부총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재)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상임이사와 특수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동학농민혁명과 오랜 인연을 맺어왔다. 김대곤 이사장은 '3년의 임기동안 여러 경험들을 바탕으로 재단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앞으로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며 자신의 뜻을 전했다.





03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현장점검

지난 4월 23일(화)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교육관에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의 적정성 및 사업계획 파악을 위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현장점검을 가졌다. 전라북도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이경문 경제협력단장, 이재철 국회협력관, 최항규 경제분석자문관이 참여하여 진행된 이번 현장점검은 이대봉 기념사업부장이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사업 전반에 대해 설명한 후 기념재단 및 정읍시청 관계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들은 이후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관람하고 향토현전적지 일대를 둘러보았다.



04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기획전시 '집강소를 가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 지난 5월 10일(금) '우리나라 최초의 농민자치기구, 「집강소」를 가다'라는 주제로 2013년도 기획전을 개최하였다. 집강소란 동학농민혁명 당시 농민자치기구로서 전봉준장군과 전라감사 김학진의 전주화약 이후 관민상화의 구체적인 실행방법으로 각 군현에 설치 운영되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백성 자치기구이자 지방자치의 실현을 알리는 신흠탄이었던 집강소에 대한 대중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국사편찬위원회와 전주대학교 등에서 일부 유물을 대여하여 기획전을 마련하였다. 기획전 개막일에는 이왕재 (사)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장 등이 참여하여 테이프 커팅식이 열렸다.

기획전시는 오는 9월 2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05

120주년 기념사업 관련단체 회의 열려

지난 5월 10일(금)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 120주년 기념사업 관련단체 회의가 열렸다. 전국의 25개 기념사업단체에서 32명의 대표자 및 관계자가 참여한 이번 회의는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사업의 방향성과 각 지역별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먼저 재단에서 2014년도 120주년 기념행사 사업개요와 계획, 그리고 각 단체에서 계획 중인 사업에 대하여 소개한 뒤, 각 단체장과 관계자들의 자유로운 의견발표와 토론이 이어져 12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해당 지역의 선양계획과 사업방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서는 모든 의견을 종합하여 120주년 기념사업의 방향을 설정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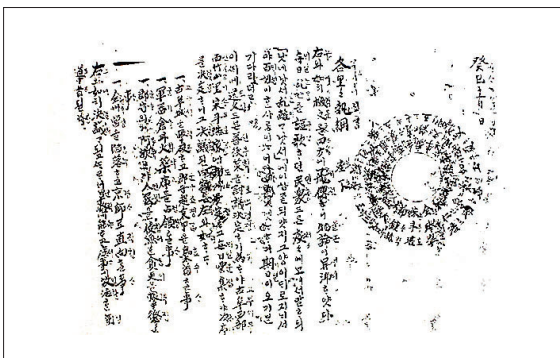


06

제2기 1차 이사회 개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2기 임원진이 구성된 이후 첫 이사회가 지난 5월 22일(수) 교육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전체 14명의 이사와 감사 중 13명의 참석하여 진행된 이번 이사회에서는 재단 정관개정, 재단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TF팀 운영계획보고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의결 하였다.

이 날 김대곤 이사장은 참석한 이사들에게 '이사 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재단을 이끌어 나가겠다'며 '언제든지 재단을 위한 의견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사발통문은...

여러사람에게 알리는 글을
통문(通文)이라 하는데 동학농민혁명 당시
누가 주모자인지를 알지 못하도록,
서명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둥글게
빙 둘러 가며 적은 사발통문을 돌렸다.

Network Word

관련단체 소식

정읍동학역사문화연구소 120주년 기념사업 청사진 제시

지난 3월 25일(월) 정읍동학역사연구소(소장 유종국)에서는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행사 계획을 밝혔다. 연구소에서는 정읍시에 '12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의 구성을 요청하였으며 이와 함께 기념행사를 공동 기획하여 효과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올해 안에 '정읍동학농민혁명기념제 45년사'를 비롯하여 12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연구와 동학농민혁명 관련서적을 발간하고 (사)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와 연구소의 기관지를 발행할 예정이다. 유종국 소장은 "혁명 120주년을 맞아 전 국민이 공감하고 계승발전 시켜야 할 동학농민혁명의 참 역사를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연구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동학농민혁명 선양과 기념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故최현식 선생 제3회 동학농민혁명대상 수상

정읍시에서는 지난 3월 28일(목)故최현식 선생을 제3회 동학농민혁명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최최현식 선생은 1960년대부터 동학농민혁명 연구에 매진하여 '갑오동학혁명사' 등 다수의 연구서를 저술하였고 갑오동학혁명기념사업회장, 향토문화연구소장, 전라북도 문화재전문위원 등을 역임하여 동학농민혁명 연구와 기념사업의 발전에 초석을 마련하였다.

정읍시에서는 2011년부터 동학농민혁명대상을 제정하여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학술 연구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시상하고 있다. 제1회는故김대중 대통령이, 제2회는 (사)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가 수상하였다. 제3회 동학농민혁명대상은 5월 11일(토)에 개최한 향토현동학농민혁명기념제에서 시상되었다.



녹두대상 ‘동학농민혁명 100년’ **전북일보 집필진 선정**

고창군에서는 지난 4월 5일(금) 제6회 녹두대상 수상자로 전북일보가 발간한 ‘동학농민혁명 100년 - 혁명의 들불, 그 황톳길의 역사 찾기’(1995)의 집필진(김은정, 문경민, 김원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집필진은 전북일보 특별취재진으로 활동할 당시,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 1993년부터 2년간 갑오년의 역사를 밝히고 오늘날의 의미를 재조명한 기사를 게재하였으며 이는 한국 근현대사에서 ‘반란’ 또는 ‘고부민란’으로 폄하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집필진은 이 기사로 1994년 전라북도 최초로 ‘한국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녹두대상은 4월 25일(목) 무장기포 기념제에서 시상되었다



전봉준장군 시향제 거행

전봉준장군 시향제가 지난 4월 24일(수) 전봉준장군 단소에서 거행되었다. 본 시향제는 천안전씨 대종회(회장 전이곤)에서 전봉준장군의 사형일에 맞춰 그의 넋을 위로하고자 1994년부터 진행해왔으며, 올해부터는 천안전씨 문효공파종회(회장 전해철)에서 주관하게 되었다. 이날 시향제에는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그리고 정읍시청 관계자 및 천안전씨 종친회원 등이 참석하여 동학농민혁명을 이끌었던 제1의 지도자 전봉준장군의 높은 뜻을 다시한 번 되새겨보았다



Network Word

관련단체 소식

119주년 무장기포기념제 열려

지난 4월 25일(목) 고창 공음면과 무장읍성에서 무장기포 기념제가 열렸다. 이번 기념제는 무장읍성축제위원회(위원장 진평)가 주최하였으며 '동학농민혁명군의 발자취와 무장읍성 무혈입성의 함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김인호 고창부군수, 고창군 의회, 지역기념사업회 대표 등 내빈과 군민 1000여명은 고창 공음면에서 무장기포 출정식을 가지고 약 8km의 진격로를 따라 무장읍성에 도착하여 무혈입성을 재현하였다. 무장읍성에서는 식전공연과 녹두대상 시상, 격려사 및 축사가 이어졌다. 녹두대상은 전북일보가 발간한 '동학농민혁명 100년 - 혁명의 들불, 그 황톳길의 역사 찾기'의 집필진(김은정, 문경민, 김원웅)이 수상하였다.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식 열려

지난 4월 26일(금) 장흥동학농민혁명 제119주년 기념식과 사단법인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이사장 이종찬) 창립대회가 열렸다.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2002년 발족하여 활동하여 왔으며 이번 사단법인 등록으로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에 더욱 활발히 나서게 되었다. 이날 기념식은 경과보고, 임원소개, 기념사, 창립선언문 낭독 순으로 이루어 졌으며, 이영흠 장흥군수, 장흥군 의회 의원, 이왕재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 회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기념식 이후에는 참가자 모두 장흥동학농민혁명기념탑으로 이동하여 헌향과 헌화를 하였다. 이종찬 이사장은 창립선언문에서 '석대들전적지에 세워지게 될 추모공간을 올바른 역사의 배움터로 활성화시킴은 물론 우리가 추모하는 넋들이 해원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제119주년 백산봉기대회기념식

동학농민혁명백산봉기기념사업회는 지난 4월 26일(금) 백산봉기대회를 개최하였다. 백산은 '앉으면 죽산, 서면 백산'이라는 말이 유명한 곳으로 호남지역의 농민군이 총집결하여 대회를 갖고 격문을 발표한 곳이다.

이날 행사는 백산 중·고등학교 학생 300명 등이 백산 평교사거리에서 백룡초등학교까지 가두 행진하여 동학농민군의 행군재현을 시작으로, 기념탑에서 농민군을 위로하는 헌화와 추모식이 열렸고 백룡초등학교에서 백산봉기대회기념식이 진행되었다. 기념식에는 김호수 부안군수, 박천호 부안군의회 의장, 김혁태 천도교 중앙총부 상임선도사, 전라북도의원, 부안군의회원을 비롯한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외에도 백산봉기 재현 인형극, 진도북춤을 비롯한 다양한 공연과 사발통문 만들기 등 체험행사를 마련하여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행사참여를 이끌어 내었다.



제2회 보은동학마당극제 개최

지난 4월 26일(금) 보은취회지(속리초등학교)에서 보은동학마당극제가 열렸다. 보은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는 보은취회 120주년을 기념하여 '사람이 하늘이니, 다시 하늘 여는 길'이라는 주제를 내세웠다. 마당극제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의 공연이 이어졌으며, 26일(금)에는 극단 연극촌사람들의 '그리운 탈나무', 연극자리소풍의 '춤추웠을 뿐인데', 27일(토)에는 광대패 모두굴의 '밥 곳', 씨알누리의 '판놀음 - 공감', 극단 꼭두광대의 '눈자라기'가 공연되었다.



Network Word

관련단체 소식

제46회 황토현 동학농민혁명기념제

동학농민혁명 119주년을 맞아 지난 5월 11일(토)부터 5월 12일(일)까지 이틀간 제46회 황토현동학농민혁명기념제가 진행되었다. 황토현 동학농민혁명기념제는 (사)정읍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에서 해마다 황토현전승일에 맞춰 개최해오고 있다.

11일(토)에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 기념식을 가졌고, 이어 동학혁명기념탑에서 '동학, 시대의 바람으로 서다'라는 주제로 119주년 동학혁명황토현전승기념제가 열렸다. 사발통문 광장에서는 1박 2일 황토현숙영캠프 입영식이 열려 100여가족들이 참여하였고 정읍 시내일원에서 동학농민군 진군행렬이 이어졌다. 12일(일)에는 구민사 제례와 황토현 전국농악경연대회, 조선세법대회, 역사퀴즈 패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가 이어졌다. 기념식 중 시상하는 동학농민혁명대상은 평생을 바쳐 동학농민혁명사를 연구하다 지난 2011년 타계한故최현식 선생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장성 황룡전투 승전기념식

지난 5월 27일(월) 장성 황룡전적지에서 황룡전투 승전기념식이 열렸다. 우천으로 좋지 않은 기상상황에서도 김양수 장성군수, 김대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진윤식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부이사장, 박남수 천도교 교령과 장성농민회원 50여명이 참석하여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장성군민의 관심과 열의를 보여주었다. 이상식 광주·전남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회장은 이 자리에서 '황룡전투는 동학농민군이 경군을 물리쳐 혁명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 중요한 전투'라고 강조하였고 '앞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전국화, 세계화, 미래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제119주년 황토현 동학혁명 전승기념식 열려

동학민족통일회가 주관하는 제119주년 황토현 동학혁명 전승기념식이 지난 5월 11일(월) 황토현 갑오동학혁명기념탑 앞에서 개최되었다. '동학, 시대의 바람으로 서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기념식에는 김생기 정읍시장, 김대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이갑상 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이사장과 천도교도 6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천도교내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념사업과 관련 단체 교류를 전담할 '동학혁명기념사업회'의 발기인 대회가 열렸다. '동학혁명기념사업회'는 동학농민혁명을 전국화·세계화 하며 각 지역의 동학농민혁명 단체와 연대·교류·협력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표방하였다.



제 3 회 가로세로 녹두꽃 낱말퍼즐 정답

늘	곰	곤	끈		을	은	움	을
		롱				로		
	유	금	부		하	움	호	
로	로		로	하	호		유	로
하				가				하
로	나		은	로	로		나	로
	유	하	부		하	로	로	
		공				유		
로	하	로	하		유	유	금	부

제 3 회 가로세로 녹두꽃 낱말퍼즐

가로세로 낱말퍼즐을 맞춰주세요.
정답은 47P 하단에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문화관광해설사
김수웅(金秀雄)



문제

이 분은 전봉준, 손화중 장군과 아울러 농민혁명의 삼장두로 전라좌도를 호령하였고, 순천에 영호도회소(嶺湖都會所 대접주 김인배)를 설치하고 영남의 서남부지방까지 그 세를 떨쳤다.

9월 봉기 이후 10월에 청주를 공격하였으나 일본군에 패하여 태인 너디마을(산내면 장금리)에 피신해 있다가 임병찬의 고발로 체포되었으며, 전주로 이송되어 처형당했다. 향년 42세였다.

가로열쇠

- 1 걸음걸이가 씩씩하고 활기참. 동학군들의 (步武堂堂)한 행군
- 3 세상일의 어려운 고비를 다 겪어 본 것
- 5 고창출신으로 조선 청년 독립단을 조직한 민족운동가
- 7 의 인원은 나귀쇠와 저승패를 포함해 사오십명 정도
- 9 1893년 동학에 입도한 뒤 접주가 된 항일독립운동가
- 10 농민군이 백산에 집결하여 부대를 조직할 때 최경선의 직함
- 12 청군과 일본군은 농민전쟁을 로 조선에 들이닥쳤다.
- 14 눈을 감고 차분한 마음으로 깊이 생각함
- 16 신미 · 병인양요 때 해상으로부터 침입하는 적을 막았던 강화 요새
- 18 농민군 진압을 요구하자 청군과 일본 해군들이 이곳을 통해 들어왔죠.
- 19 사발통문은 가 드러나지 않도록 참가자의 명단을 적은 통문
- 21 전라감영군과 들이 농민군과 싸운 황토현 전적지는 정읍에 있다.
- 23 사발통문은 4개 조항의 이 적혀있다. 行動綱領
- 24 동학군은 우금치에서 하였으나 결국 패하고 말았다.

세로열쇠

- 2 조선 시대에 둔, 정삼품 이상의 품계에 해당하는 벼슬
- 4 조선시대, 세곡의 운반을 맡아보던 전운서(轉運署)에속한 관리
- 5 전봉준장군이 13살 때 작시한 시(白鷗詩)를 비석 으로 건립
- 6 조선 시대에, 수군절도사가 있던 군영(軍營)
- 7 여자가 남자처럼 차림. 김연아 갈라쇼 여인으로 변신
- 8 삼 년에 폐풍월(峽風月)/ 堂狗(서당개)
- 9 금구 대접주로서 원평을 호남 지역의 동학 중심지로 만들었던 분
- 11 동학군들이 땀감으로 쓰러져 꺾어서 말린 소나무 가지
- 13 폭이 매우 좁고 작은 개천
- 15 1894년 10-12월쯤 이곳 소모사에서 농민군 수천명이 3일만에 학살당함
- 16 관직의 차례를 건너뛰어 정삼품 통정대부 이상의 품계를 올리던 일
- 17 조선시대, 함경도와 평안도의 북방 변경에 있던 각 진(鎭)
- 18 물건값, 봉급, 요금 따위를 종전보다 올림. 원유가 8월부터
- 20 정읍천과 고부천이 만나 상류를 이루는 곳에 만석보가 있다.
- 22 조선시대, 임금의 장인이자 정일품 공신에게 주던 작호



집강소를 가다

우리나라 최초의 농민자치기구



집강소를 총괄하던 대도소大都所(전라감영 선화당)

2013. **5.10** (금) ~ 2013. **9.28** (토)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기획전시실

주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후원  전라북도

문의처_ 기념관운영부 063. 536. 1894

관람시간_ 09:00~18:00 (오후 5시까지 입장하셔야 관람이 가능합니다)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 슬로건 공모안내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지 120주년이 되는 2014년
각종 기념행사에 활용할 참신한 슬로건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응모주제 | 동학농민혁명기념 120주년 행사에 전 국민이 참여하여,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계승·선양하고자 하는 내용

응모대상 | 전 국민

응모일정 | 2013. 7. 10(수) ~ 8. 31.(토)

제출방법 | 우편접수 및 온라인 접수(www.1894.or.kr)

당선작 발표 | 2013. 9. 30(월) (재단 홈페이지, 개별통보)

시상내역 | 최우수상(1명), 우수상(2명), 장려상(5명)

당선작이 없을 시 시상하지 아니함

※ 시상내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예정



www.1894.or.kr

문의사항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기념사업부 Tel. 063-538-2896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